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새해 금융 목표,
뱅크오브호프와 설계하세요!
FDIC
2024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64호

Thursday, January 25, 2024 A

트럼프 대세론 “이번 없었다”

일반인 참여한 뉴햄프셔 경선 압승
WP “레이스 거의 다 끝나가” 보도
헤일리 “경선 더 남았다” 사퇴 일축



“USA! USA! USA!”

23일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축하 행사가 열린 내슈아한 호텔의 연단에 오르자 수백 명의 지지자는 한목소리처럼 외쳤다. 한 지지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54.5%의 득표율을 기록해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43.2%)를 11%포인트 이상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지난 15일 첫 경선을 치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은 2연속 과반 대승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세론’을 재확인하며 2020년 대선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사실상 굳어졌다. 아

이오와 코커스가 공화당의 첫 경선지로 자리 잡은 1976년 이래 공화당 경선에서 맨 처음과 두 번째 경선에서 연속 승리한 후보는 모두 최종 대선 후보에 지명됐다. 워싱턴포스트는 “(경선 레이스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승리 축하 행사장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그들(조 바이든 행정부)이 하는 일

이 너무 나쁘고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일리 전 주지사를 두고선 “무소속 표가 많이 나왔지만 공화당원 표에서는 겨우 25%만 얻었다”며 경선에서 졌는데도 자신보다 먼저 연설 무대에 올라 마치고 갔던 것처럼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맨체스터-워싱턴=김형구·김필규·강태화 특파원
▶ 2면 ‘성난 백인’으로 이어집니다

한인 노인 고립감 아시안중 가장 심각

17%가 “외부교류 주 1회뿐”
영어 미숙이 주요 원인 지적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의 교육 수준이 타 아시안 인종보다 높지만 6명 중 1명꼴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살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인 커뮤니티가 고령화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에 있는 비영리 재단체인 지인사이트(CI)가 지난 18일 발표한 아시아인 건강 및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노인의 15%만 주 5회 이상 사회적 교류활동을 하고 있었다. 반면 17%는 주 1회 미만으로 나타나 고립돼 생활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아시아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섬 주민(AANHPI)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을 조사한 것이다. 시카고를 포함해 아시안 인구분포도가 높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비롯해 중국

계, 인도계, 필리핀계, 파키스탄계 출신 59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인 시니어들은 다른 아시안 그룹보다 사회적 활동이 적었다. 보고서는 “한인의 사회적 교류가 가장 부진하다. 공연에 가거나 피트니스를 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한인 시니어의 영어 미숙으로 인한 고립도도 지적됐다. 한인 시니어는 무려 96%가 영어 아닌 한국어로 주로 사용했다. 전체 한인 연령대에서도 87%가 한국어를 주로 사용했다. 반면 필리핀계의 경우 시니어는 40%만, 전체 연령대에서는 22%가 영어 외에 언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교육 수준은 한인 시니어 응답자의 13%만 고졸 미만으로 파악됐다. 고졸 이상은 43%로, 필리핀계(88%), 파키스탄계(44%)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장연화 기자
▶ 3면 ‘한인 시니어’로 이어집니다

물가 폭등에 직장인들 부업 급증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회사에 다니면서 짬 내서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 인기다.

연방노동부는 2022년 기준 부업을 하는 직장인의 규모가 무려 16만 5000명이나 급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백크레잇가 성인 2391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재정 목표에 대한 조사에서 16%가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혹은 부업과 같은 기타 수입원을 확보할 계획이라 답했다. 또한, Z세대(11~26세)의 절반 이상인 53%가 부업을 하

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27~42세)의 40%가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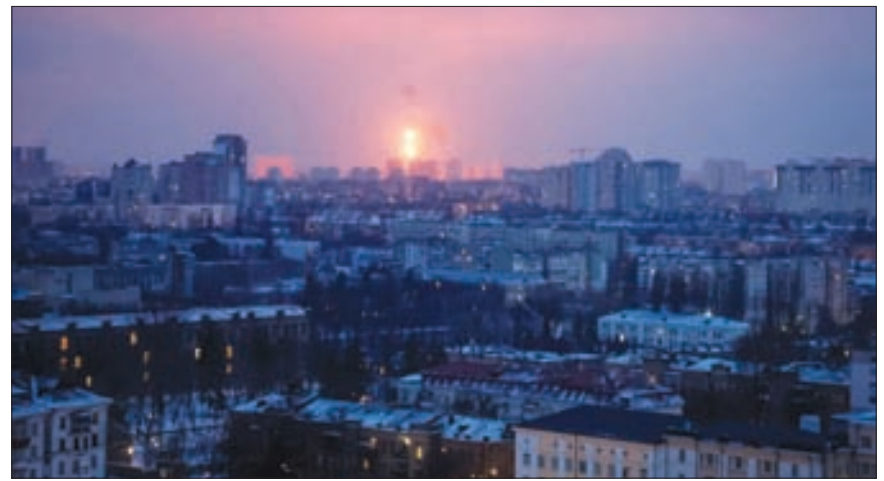
CNBC가 추천한 대표적인 부업 4가지 소개한다.

▶인공지능(AI)스페셜리스트
2022년 챗GPT의 출시로 AI기술자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 2023년 1~7월까지 프리랜서 사이트 파이이버에서 AI 컨설턴트 검색이 650% 이상 증가했다. 이 부업은 챗GPT를 사용해 책 표지를 디자인하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밀레니얼·Z세대 40·53% 알바 전문직부터 도우미까지 다양

터, 이메일을 작성해주는 부업이다. 파이이버와 업워크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전문성에 따라 시간당 50~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각 사이트가 청구하는 수수료를 주의해야 한다.

▶투어가이드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관광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의 87%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여행 가이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4면 ‘부업’으로 계속 정하은 기자



우크라이나의 비극 세계인들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멀어진다. 어느덧 우리들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처에 떨어져 폭발하는 사진 속 러시아 미사일의 섬광도 멀리 떠오르는 일출처럼 일상의 그것으로 인지할 지도 모르겠다. [로이테]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예기 물받이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북, 순항미사일 5발 발사... 핵탄재 가능하다는 '화살 1·2형' 가능성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도발 열흘만 서해상으로 발사, 정밀타격 시험 “전술핵 신고 회피기동 댄 큰 위협”

북한이 24일 이른 아침 순항미사일을 쏘며 대남 대적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4일 ‘극초음속’이라 밝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열흘만의 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발사된 북한의 순항미사일 수발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5발 남짓한 미사일이 내륙에서 발사됐다고 한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탄도미사일과 달리 마하 0.8(시속 970km) 정도로 속도가 느린 데다 100m 안팎의 저고도를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며 비행해 상대적으로 탐지가 까다롭다. 군 당국은 정확한 발사 원점과 속도 비행시간 등 제원을 파악 중이다.

제트 엔진을 장착한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모



두 알리진 않기도 했다. 이날 곧바로 공개한 데는 북한이 최근 위협 수위를 높이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확고한 경계태세를 알려 국민을 안심시키는 한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 선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미사일이 화살-1형 또는 2형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화살은 사거리 1500km로 북한이 지난 2년간 전력화에 공을 들이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다. 북한은 2021년 9월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KN-27

개량형 화살-1형을 처음 시험발사한 뒤 수차례 화살-1·2형의 시험발사에 나섰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3월 도발 때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화살-1형과 2형을 각각 2발씩 쏘어 쏘았다는 내용을 영상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같은 해 7월과 9월에도 같은 순항미사일을 쏘았다. 비행거리와 시간을 늘려가며 저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산등성이 등 지형을 피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지 시험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 화살 미사일을 놓고

남한을 노린 전술핵 탑재용이라는 점을 수시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살-1·2형으로 공중폭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중폭발은 가장 큰 살상력을 얻을 수 있는 핵무기 폭발 고도를 찾으려는 의도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발사 당시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화살 미사일들을 고도 600m에서 공중폭발시켰다”고 밝혔고 같은 해 9월 발사 때도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켰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

예교수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화살 계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이라면 전술핵을 탑재해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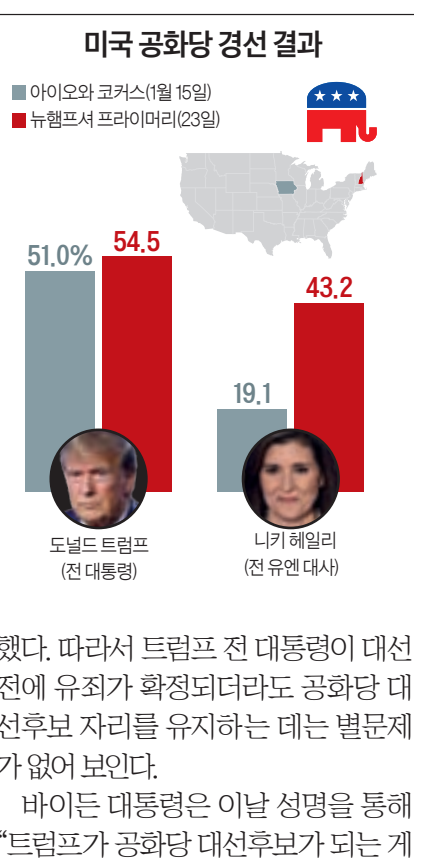
◆국정원 “국내 해킹 80%는 북 소행”=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162만 건의 해킹이 발생했으며, 이 중 80%가 북한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백종욱 3차장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162만 건은 2022년 대비 36% 증가한 것”이라며 “총선이 있는 올해는 북한 등의 해킹 시도와 가짜뉴스 전파가 더 늘 수 있다고 보고 산학연 공동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 해킹의 주요 특징은 김정은 위원장이 활동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김정은이 시랑난 해결을 지시하자 국내 농수산 기관 3곳을 집중 공격해 식량 연구자료를 절취했고, 8~9월에는 조선소를 방문해 해군력 강화를 지시하자 국내 조선업체 4곳의 도면 설계자료를 절취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1면 ‘성남백인’에서 이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은 견고한 지지층의 결집, 불안정한 이민자에 일차리와 부(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절망감에 빠진 ‘프리캐리 아트’(Precariat, 불안정하다는 뜻의 ‘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로 불안한 고용 상황의 노동자 계급)의 불안·분노 심리를 자극한 선거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공화당 프라이머리 출구 조사에서 투표자의 10명 중 3명은 경제와 이민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지목했다. 낙태 및 외교안보 정책을 꼽은 사람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그가 이긴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아직 여러 주가 남아 있다. 다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다”고 말했다. 후보직 사퇴를 압박하는 당내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레이스를 계속 이어가 다음 달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

머리에서 다시 맞붙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가 두 자릿수 격차의 대승을 거둬 따라 이제 시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 가능성이 유력시되는 11월 5일 대선 본선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은 ‘사법 리스크’다. 그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비롯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이며 일부 주에서는 그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걸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그가 대선 투표 이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선 국면은 또 한 번의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이번 뉴햄프셔 출구 조사에서 공화당 프라이머리 유권자의 과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직에 적합하다고 답했다. 아이오와에서도 이 같은 답변은 전체 응답의 3분의 2에 달



이제 분명하다”며 “이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 낙태권부터 투표권에 이르는 우리 개인의 자유, 코로나19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인 우리 경제가 모두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같은 날 열렸던 뉴햄프셔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절반을 넘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민주당 투표용지에는 바이든의 이름이 없었다.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첫 공식 경선을 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을 거부하고 뉴햄프셔주가 먼저 프라이머리를 강행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이 용지에 수기로 바이든을 적어 그가 승리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 대신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의 낙태권 관련 행사장을 찾았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동행한 그는 사실상 올해 첫 선거 유세인 이

날 낙태권 문제를 제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 의해 폐기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 여성들에게 악몽과 같은 일”이라며 “미국에서 이 같은 자유를 빼앗긴 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시 40% 대 45%로 5%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18일 허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업체 헤리스의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양자 대결 시 41% 대 48%로 7%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체스터·워싱턴=김형구·김필규·강태화 특파원

Weather forecast for January 25th (Thursday) with temperatures ranging from 61 to 53 degrees Fahrenheit. Includes icons for clouds, rain, and sun.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Includes a note about USPS publication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연순향 부동산 (Yeon Sunhyang Real Estate) with contact number 703-489-6926 and a photo of the agent.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승경호 부동산 (Seunggyeongho Real Estate). Features a grid of property listings including restaurants, offices, and home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to of the agent.

시위로 얼룩진 바이든의 VA 매나사스 유세

SPECIAL STORY

첫번째 대선 캠페인으로 관심 모아 시위대, '대량학살 조' 외치며 야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번째 대선 캠페인으로 관심을 모았던 버지니아 매나사스 유세는 시위로 얼룩졌다.

지난 23일(화) 버지니아 매나사스에 소재 조지메이슨 대학 힐튼 공연 예술센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대선 유세가 열렸다. 이날 유세에는 질 바이든 영부인과 더그 엠호프 부통령 남편도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 일행은 해병대 1호 헬기를 타고 매나사스 공항에 내려 조지메이슨 대학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캠퍼스에 소재한 힐튼 공연예술센터로 향했다.

2천여명의 청중이 참가한 이번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낙태 금지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던 와중에 대역성명의 시위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가지지구 정책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를 애써 무시하며 낙태 이슈를 계속 거론하려 했으나, 시위대가 외치는 '대량학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매나사스 유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의 외교정책을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격렬히 시위하고 있다.

(Genocide Joe)' 구호 때문에 다섯 번 이상 연설이 중단됐다.

이번 유세의 주제가 연방대법원의 1973년 낙태 합법화 판례(Roe v Wade)를 복원시키자는 취지로 '복원 로(Restore Roe)'로 정해졌는데,

음률을 맞춰 대량학살 조가 쓰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022년 이 판례를 뒤엎고 낙태 규제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낙태를 사실상 불법화했다. 시위대는 수분 이내에 비밀경호국

(SS) 요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으나, 장내의 술렁거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청중들은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박수와 야유를 동시에 보였다. 행사장 바깥에는 유세 두시간 전부터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가지지구 학살을 막아달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천부적인 권리가 있듯이 재생산 여부에 대한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면서 "의회는 반드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나는 그 즉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공화)가 작년 총선에서 낙태 금지 공약을 추진했다가 패배한 사실을 감안해, 바이든 대통령이 버지니아에서 또다시 낙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나,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지나간 이슈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버지니아 공화당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흡수 사태 등 현안을 외면하고 표밭 같이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옥채 기자

재외동포청 민원 상담 이젠 카카오톡 채팅으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기존 국제전화 외에도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동포청은 지난해 6월 5일 서울 광화문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김연식)를 개소하면서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02-6747-0404)'를 개통해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콜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싼 국제전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1면 '한인 시니어'에서 이어집니다

보고서는 양질의 교육은 성인이 된 후 고소득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만 영어 구사력이 미숙할 경우 심리적 고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말리아어터의 유전자 이사장은 "한인 시니어들은 병원을 가도 영어 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 치료를 제대로 받기 힘들다"며 "언어로 인한 고립감으로 사회 활동을 거부하는 시니어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 시니어의 빈곤율은 중국계(80%), 인도계(62%), 필리핀계(43%), 파키스탄계(3%)보다 낮은 30%로 파악됐다. 빈곤율을 계산하는 연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일 경우 1만4580달러 미만, 2인 가구는 1만9720달러 미만이다.

보고서는 "시니어의 빈곤율은 아무리 낮아도 당장 거주와 식생활 문제로 연결된다"며 "이는 수명 단축, 사망률 증가,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저하한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 준비서류 복잡해 서둘러야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워싱턴총영사관(총영사 조기중)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탈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

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서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

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아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피니언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골프 라운지

SUPER BOWL LVIII SPE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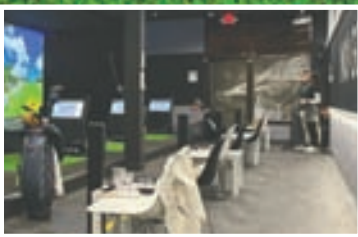
FEBRUARY 11, 2024 | 5 PM - 10 PM

- \$1 WINGS
- 50% OFF DRAFT, BOTTLE, & CAN BEER
- \$5 OFF SOJU

Offer only available at the bar and lounge area



GRAND NO.1 GOLF LOUNGE OPENING



최고의 휴식처이자 문화생활의 멀티스포테인먼트 경험!
바와 라운지 완비!
가족, 친지, 비즈니스 모임에 최적의 장소!
고객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100% 만족을 약속합니다.



Days of week **Open hours**
SUN 10 AM - 10 PM
MON / TUE / WED / THU 10 AM - midnight
FRI / SAT 10 AM - 2 AM

영업시간은 공휴일 등 조정 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NO.1 GOLF LOUNGE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571-591-4455

한인 후보들이 된다2제

한인 첫 연방 상원의원 꿈 잡겠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예산 승기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민주 공화국의 극한대결이 대선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미국에서 앤디 김(사진) 연방 하원의원(뉴저지·민주당)의 상원 도전은 한인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외교 전문가로 일하다 하원에 도전해 3선을 지냈고 이제 동부 지역 최초 아시안이자 최초의 한인 상원의원이라는 희망을 쏘아올렸다.

새해 뉴저지서 최대 경쟁을 시작할 김 의원의 각오와 메시지를 들어봤다.

-극한 대결 탓에 젊은 세대는 투표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선은 현재 국제적인 갈등과 위기 속에 치러지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가 깊다. 연방하원을 포함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없어 보인다. 불신에다 양극단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수록 더 관심을 갖

고 참여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상대당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 민심이 심판하고 지적해야 한다. 상하원도 이런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상원의원 선거 캠페인 진행 상황은.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신나는 꿈이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상대 머피 후보는 오래된 당내 인맥과 자금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3선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외교 현장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이런 장점을 유권자들이 잘 이해하고 표를 주

바란다.”

-지난 6개월 동안 275만 달러를 모았다.

“머피 후보와 달리 기업과 정치후원회의 돈을 받지 않았다. 머피 후보는 300만 달러를 넘게 모았다. 남편이 주지사이며 가족 자체가 부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우리 캠프를 더 잘 알게되면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들이 가장 큰 힘이 된다. 동기부여가 된 아들들은 어떤 반응인가.

“6살과 8살의 초등학생들이다. 아직은 어려서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아이들이 자라서 살게될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 해줬다. 더 큰 도전에 아이들이 반가워하고 신기해한다.”

-한인사회에 메시지가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전에 없던 이런 꿈같은 승리를 한인들과 함께 맞이해보고 싶다. 지켜보고 지지해달라.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최인성 기자

한인사회는 내 고향...정의 위해 헌신

제이콥 이 카운티 판사 후보



“이민은 부모님이 한인타운에서 겪은 사건 탓에 법조인이 됐습니다.”

LA 법원을 더 반듯하게 만들고 싶다는 제이콥 이(36·사진) 카운티 법원(39호) 판사 후보가 설명한 자신의 출마 배경이다.

10년차 선임 검사로 활약해온 이 후보는 한인사회를 ‘고향’이라고 표현하며 안전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포부와 희망을 들어봤다.

-강도 피해 경험'이 출마 이유라고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넉넉치 않은 이민 생활을 꾸려가셨는데 몇 차례 강도 피해를 받으셨다. 물론 나이가 어려서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후 범인

도 무섭고 경찰도 무서워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다. 당시 그런 분들이 한두분이었겠나. 그래서 검사가 됐다. 이제는 법원을 이끄는 판사로서 시민들을 보

호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교육과 검찰에서의 경험은

“UC버클리에서 수사학(Rhetoric) 전공 후 로올라법대를 졸업했다. 첫 2년 동안 프레즈노 카운티 검찰에서, 이후 8년 동안 LA 카운티 검찰에서 일했다. 최연소로 ‘캘리포니아 검사(선임 검사)’ 역할을 맡아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다룬 경험을 갖고 있다.”

-본인 고유의 경쟁력은

“다른 변호사 경력의 경쟁 후보들과 달리 형사 기소 검사로 일했다. 대부분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죄의지를 가진 법정을 원할 것이다. 개스콘 검사장 등 법원의 제로 베일 정책에 맞서 소신있는 판

단을 내리는 판사가 되겠다. 한인타운과 한인사회에서 자란 아들같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현재 선거 판세는

“6년 임기로 현재 3명의 경쟁 후보가 있다. 이중에 2명은 관선번호사이며 1명은 로펌 변호사다. 3월 예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면 본선 없이 당선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엔 1, 2위 득표자가 11월 본선에서 붙게된다. 원래 판사 선거가 크게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부분이다.”

-사실상 2세인데 한국어 능숙하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대학 수업, 한국어 예배 등이 도움이 됐고 아내가 한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 후보는 현재 현직 판사 50여명, 라티노검사연합회, 스티브 콜리, 제키 레이시 전 검사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인성 기자

“3월부터 4차례 연준 금리인하”

골드만삭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부터 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연준의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의 연착륙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골드만삭스의 조슈아 쉬프린 글로벌 트레이딩 전략 책임자는 지난 22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 같이 예측했다.

그는 올해 위험자산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상반기는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속도와 관련한 전망을 놓고 혼란을 겪으면서 험난할 것으로 점쳤다.

쉬프린 전략책임자는 튀르키예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라고 조언하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으로 하락한 만큼 ‘역발상 투자’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쉬프린 전략가는 이와 함께 “3월 금

리인하를 강하게 믿는다. 연준이 빨리 시작할수록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언제든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하를 멈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 결정 투표를 행사하는 바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우리의 목표로 가는 경로에 있다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정상화하는 데는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고무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1면 '부담'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비아투어나 투어바이로컬스에서 는 직접 투어를 기획해 최소 58달러에서 445달러까지 벌 수 있다. 단, 제공하는 투어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니어 육상지도사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2020년 인구의 16.8%인 558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지도사들의 수요도 늘고 있다. 티치미 웹사이트(teachme.to)에는 자신이 지도하고자 하는 하는 종목(피클볼, 테

니스, 골프, 복싱, 서핑)을 올리면 이를 보고 전 연령층의 수강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 시간 레슨에 68~141달러가 책정된다.

▶가사도우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늘자 하우스 헬퍼의 수요가 늘고 있다.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 볼드하우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안젤리크 로이 터는 “잔디 깎기, 세차하기, 쇼핑이나 반쯤 등을 위해 도우미의 수요가 늘었다”고 전했다.

정하은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LEXUS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1월에 총기판매 급증하는 이유는?

각종 총기규제법안 쏟아져

총기 못살까 두려워 총기 사재기

민주당이 버지니아 양원 의회의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다수의 총기규제법안을 쏟아내자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총기규제법안이 성사되기 전에 총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번 회기에 기필코 반자동소총과 연발 고기능 탄창 등 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 법안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가의 반자동소총 등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총기 추적이 불가능한 고스트건 제조 및 판매, 소유 금지법안을 상정했다.

모든 총기 구입자를 대상으로 총기 구입전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한 법안도 올라왔다.

살인과 자살, 테러 등을 목적으로 총기를 총동구매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의도이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낙태 전 이를 동안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던 낙태금지법안을 본따서 회대의 조롱거리가 될만한 법안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량안에 눈의 띄게 총기를 방치할 경우 500



달러의 민사범죄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했다.

총기옹호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최근 5년내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일 경우 총기소유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이다. 총기옹호단체들은 정신병력자와 각종 범죄전력자에 이어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해서도 총기소유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기존의 살상용 무기 소유자에 대해 공공장소 총기 휴대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강화된 절차를 거쳐 퍼밋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는 이미 충분히 강력한 총기규제법들을 시

행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오히려 기존의 총기규제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으로 맞서고 있다.

글렌 스투어터번트 상원의원(공화)은 가정폭력범 등의 총기를 강제로 압류하도록 규정한 레드 플래그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스튜어터번트 의원은 애초 2019년 이 법안에 찬성한 인물이지만, 2019년 선거에서 극우강경파로 꼽히는 아만다 체이스 의원에게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작년 선거 공약으로 레드 플래그 법률 폐지를 내걸어 ‘법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구인 광고에 임금 수준 적시해야

VA 의회 의무화 추진, 위반시 “4천달러 벌금”

버지니아 의회에서 구인광고 게재 시 반드시 임금 범위를 적시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제니퍼 보이스코 상원의원(민주·사진)은 “임금 범위를 미리 게시하지 않아 인터뷰 말미까지 임금 수준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잦다”면서 “이같은 관행은 고용주 편의적인 것으로, 근로자 편의적인 법률로 이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근로자의 과거 연봉 수준을 묻는 질문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보이스코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8



년째 연속 상정해 왔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보이스코 의원은 “과거 연봉 수준에 대한 질문은 구직자의 과거 임금에 맞춰 미래의 임금을 책정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관행이 여성임금이 남성의 80% 수준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안은 위반시 건당 최대 4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김창용 발전문학과 함께 하는 ‘발질환 예방세미나’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김진아)와 한미의사협회(회장 Gina Kim-Ahn, MD)가 함께 진행하는 ‘커뮤니티 건강 세미나’ 그 네번째 시리즈가 오늘 (25일) 오후 6시 30분, 줌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김창용 발전문의(Chang Yong Kim, DPM·사진)와 알아보는 발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 ‘발질환 세미나’로 열린다.

발의 변형이나 통증이 가져다 주는 영향은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 무릎, 엉덩이, 허리의 관절이나 뼈 손상과 더불어 심장과 폐 기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체중을 지탱하면서 활동을 하는 만큼 발에는 근육, 관절, 인대 등과 관련된 질환이 생기기 쉬우며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내성발톱, 무좀 등이 대표적인 발질환이다.

이러한 질환은 선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건강한 발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습관이 필요하다.

김창용 발전문의는 “약간의 발 통증만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기본적인 활동인 서거나 걷기가 불가능해지며, 일상생활 및 운동 등을 수행하는 데에 큰 제약이 생긴다. 이로 인해 전신건강이 영향을 받게 되며, 발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 다양한 발질환의 원인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및 예방법을 알려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703-354-6345 김지연 헬스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링크: <https://bit.ly/kcscfoot>

김윤미 기자



“30년전 부인 살해 후 도주” VA 최장기 지명수배범 체포

코스타리카 입국시도중 검거
페어팩스 카운티 압송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최장기 지명수배자가 검거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의하면 범인 호세 라자로 크루즈(56세·사진)는 지난 1991년 4월 30일 웨스트 폴스처치의 코퍼 로드 선상의 주택에서 부인 에나 후라도(사건 당시 2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도주했다.

5월 10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범인은 이미 모국인 엘살바도르로 출국한 상태였다.



1999년 카운티 경찰국은 범인 검거를 위해 엘살바도르도 출장 수사에 나서 결정적인 정보를 다수 확보했으나 체포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연방법무부는 해외 정보 수집 과정에서 범인이 2022년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에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년 6개월 이상의 노력 끝에 페어팩스 카운티로 송환할 수 있게 됐다.

연방마살국(USMS)는 해외도주 지

명수배자 송환 프로그램에 의해 지난 18일 범인을 인계받아 미국으로 데려온 후 페어팩스 카운티에 넘겨졌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995년 강력범죄수사국 산하에 미제사건 전담반을 구성한 이후 끝까지 장기 미해결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는 오래된 살인사건도 절대로 잊지않고 파헤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제보거리도 소중한 정보자산으로 취급하기에 적극적 신고(703-246-7511)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투자 · 상업투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https://www.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바이든, 후보등록 안한 뉴햄프셔서 싱거운 승부

뉴햄프셔주에서 23일 진행된 민주당의 비공식 프라이머리에서 조 바이든(사진)대통령이 압도적 당내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유력한 다른 경쟁자는 없었으나 후보 등록 없이 바이든 대통령 이름 쓰기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면서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이 과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으나 이를 가뿐하게 해소했다.

언론에 따르면 24일 오전 1시50분 조 바이든 대통령은 42.4%의 득표를 받았다. 여기에 전체의 25%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기명 투표인 상태로 이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 표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이 6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딘 필립스 하원의원은 19.6%를 득표했고 진보성향의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은 4.7%를 얻었다.

모두 4차례 대선에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이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기명 투표 지지’에 뉴햄프셔서 첫 승리...4년전 5위 수도 설욕
바이든 “민주적 절차에 대한 헌신 보여준 역사적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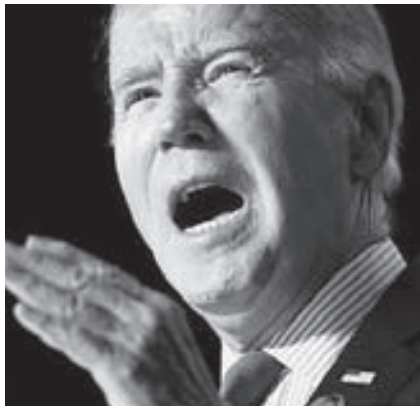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8년과 2008년에는 뉴햄프셔주 경선 전에 사퇴했으며 2020년 대선 때는 뉴햄프셔주에서 5위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은 한 자릿수(8.4%)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올해 경선을 앞두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첫 프라이머리를 개최해줄 것을 당에 요청했다.

백인 위주의 뉴햄프셔주 인구 구성이 미국 유권자 분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개인적인 감정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당시 나왔다. 2020년 대선 경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하면서 초기 관세를 뒤집고 후보가 됐다.

전국위는 바이든 대통령 요청대로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첫 프라이머리를 개최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뉴햄프셔주는 전국 최초로 프라이머리를 개최한다고 규정한 주(州)법을 이유로 프라이머리를 강행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프라이머리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전국위는 뉴햄프셔 대의원도 전당대회 집계에 불포함시키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표는 그대로 진행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저조한 득표율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내 지지 및 본선 경쟁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뉴햄프셔주 민주당 유권자 일부가 첫 프라이머리 지역을 변경한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우려를 키웠다. 이에 따라 풀뿌리 단체를 위주로 ‘바이든 대통령 이름 쓰기(wirte-in)’ 기명 투표 운동이 전개됐으며 그 결과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대승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저녁 내 이름을 써 준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재선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대결 상대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밀리는 조사가 계속되면서 당내 일각에서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프라이머리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심(黨心)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예상 최종 득표율은 70% 미만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현직으로 재선에 나섰을 때 뉴햄프셔에서 받았던 수치(81%) 보다는 밑돈다.

뉴햄프셔주 기명투표 운동을 전개한 민주당 조 카이아조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믿을 수 없는(지지) 열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로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유일한 대선 경선 참여자인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도 나왔다.

레이 버클리 뉴햄프셔주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것을 승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다른 주에서 이 정도로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MS, 장중 시총 3조 달러 돌파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가총액이 24일 장중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동부 기준 오전 11시 52분 뉴욕 증시에서 MS 주가는 전날보다 1.23% 오른 403.79달러에 거래됐다. 시가총액도 3조10억 달러를 기록하며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장중이긴 하지만, MS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 상장 기업을 통틀어서는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에 이어 두 번째다. MS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을 잡고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렸다.

현재는 2위로 내려앉았지만, 지난

12일에는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3일 보고서에서 “MS의 AI 입지와 기여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415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MS는 오는 30일 작년 4분기(10~12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타뱅크는 MS의 견고한 실적을 기대한다며 이날 목표주가를 432달러에서 470달러로 올렸다. 같은 시간 애플 주가는 0.28% 오른 195.78달러에 거래됐다. 시총은 3조26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또 후티 맹폭... “대함미사일 2기 파괴”

미군이 24일(현지시간)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또다시 공격해 대함미사일 2기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예멘 시간으로 24일 오전 2시 30분께 남부 홍해를 겨냥해 발사를 준비하고 있던 후티의 대함 미사일 2기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미사일들을 확인했고, 해당 지역의 상선과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한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해 미사일을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홍해 무역로를 위협하는 후티에 맞서 다국적 함대를 꾸린 미국은 이달 12일부터 예멘 내 후티 반군 군사시설을 폭격해왔다.

지난 22일에도 미군과 영국군은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예멘에 있는 8개 후티 표적을 겨냥해 대대적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 국방부는 23일 브리핑에서 후티에 대한 첫 공습 이후 지금까지 25개가 넘는 미사일 발사 시설과 20기가 넘는 미사일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홍해 항모에서 출격하는 미 전투기(미 해군 제공)

국방부는 후티의 무인기와 해안 레이더, 대공 감시 역량, 무기고 등을 겨냥한 공격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후티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후티가 상선이나 해군 함정을 마지막으로 공격한 게 지난 18일이었다면서 그동안 미군과 영국군은 후티의 공격이 임박할 때마다 자기방어를 위해 공습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후티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작년 11월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교역로인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해왔다.

“경제적 능력 보고 학생선발”

명문대, 1억 달러대 합의금 지급

미국의 명문대들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예일과 컬럼비아, 브라운, 듀크, 에모리대 등 5개 대학이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1억 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각종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에 위치

한 이들 대학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것은 장학금 입학 제도 때문이다.

대학 학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국가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

지원자들은 원서를 내는 과정에서부터 학비를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실제 미국 대학 중에서는 지원자 중 합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지원 대상 합격생 비중이 늘어난다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대학들은 ‘학비를 낼 능력이 있는지

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대학이 학생의 경제적 능력을 입학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미국 연방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 학생 단체는 합의금을 내기로 한 5개 대학을 포함해 코넬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조

지타운, 펜실베이니아대(유엔) 등 모두 1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한 결과 학생들이 더 저렴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었다.

다만 이번에 합의금을 내기로 한 대학들은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브라운대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유에 대해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메디케어!

2024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안내

보험료 감면 상담 / 병원비 탕감 상담

메디케어 무료 신청

- 1958년, 1959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파트 A & B ◆파트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 B, G, K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QMB, CCC + DSNP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0 organizations which offer 68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등록

“건강보험은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충분한 커버가 되어야 합니다!”

종전에 오바마보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 수입이 많다고 보험료가 비쌌다.
- 건강보험이 있어도 받아주는 안인 의사가 없다.
-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료비는 다 내 부담이다.

NEW

- ▶고소득자 영업자에게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제로 플랜이 확대되었습니다.
- ▶안인 의사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랜이 늘었습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지금 상담하십시오.

정승욱/김영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Sponsored by

스마트보험 SMART INSURANCE

Licensed Agent

정승욱 · 김영선

상담

703-844-0355

4000 Legato Rd. Suite 1100
Fairfax, VA 22033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적극 추천하는 여행!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 | | |
|-------------------------|-------------------------|
| 1차 출발 3/26-4/5 (봄꽃특선) | 4차 출발 9/17-9/27 |
| 2차 출발 4/16-4/26 | 5차 출발 10/15-10/25 |
| 3차 출발 6/18-6/28 (영어가이드) | 6차 출발 10/22-11/1 (단풍특선) |
- 특선**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투어
 2.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3.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고향냄새 솔솔나는 먹거리

- 2/06~2/10 코스타리카 4박 5일 \$1890(항공포함)
 2/16~2/24 바하마 크루즈 8박 9일 \$1190(인사이드)
 3/13~3/19 남 프랑스 6박 7일 \$2890+항공
 3/16~3/28 남미 일주 1차(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190+항공
 3/16~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2990+항공
 3/22~3/28 페루 일주 6박 7일 \$2890+항공
 3/25~3/31 봄방학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3/26~4/05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 11일 \$2990+항공
 3/29~4/10 남미 일주 2차(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190+항공
 4/16~4/26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2990+항공
 4/22~5/02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4/22~5/05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4/22~4/30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4/24~5/05 호주 & 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4/29~5/05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5/03~5/12 바르셀로나 & 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4390+항공
 5/06~5/16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5/07~5/17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 11일 \$3190+항공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6/11~6/22 영국 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 9일 \$3990+항공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6/25~7/0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28~7/03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인사이드 \$1990(항공포함), 발코니 \$2590(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17~9/27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9/17~9/30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17~9/25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24~9/30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 & 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역) 9박 10일 요금문의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요금문의
 11/12~11/24 이집트 & 이스라엘 & 요르단 13박 14일(사내산) \$5190+항공
 11/12~11/20 이스라엘 & 요르단 10박 11일 \$31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때론 부담없이
클래식 고국일주
 10박 11일
\$22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1차 노유선 다낭 3박 + 고국 7박 5/18-5/29 \$3090+ 항공	2차 일본 3박 + 고국 7박 5/21-6/1 \$3590+ 항공	3차 노유선 다낭 3박 + 고국 7박 11/9-11/20 \$3090+ 항공	4차 일본 3박 + 고국 7박 11/12-11/23 \$3590+ 항공
---	---	--	--

특선

1. 4성급 이상 호텔
2. 대형버스 투어
3. 고향냄새 솔솔나는 먹거리 *옵션 불포함

3월 26일 **꽃들의 향연**
고품격 전국일주가 시작됩니다.
 3/26~4/5 **\$2990+**항공

2024년 13회 사진있게 출발합니다!!!

TMCI Total Medicare Connection Institute
고국건강검진
 현대아산병원 / 서우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세브란스 (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 (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 (기본검진)
 남 100만원 /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윈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왕궁갈매사원, 코끼리 트래킹, 약어농장, 백안늪, 바위굴, 태국특산물	푸켓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핑안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할롱 사원, 코끼리 트래킹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하노이, 엔트, 하롱베이, 하롱데미마크, 호치민명보,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다낭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교, 권가사당, 풍물시장,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에성, 티엔무사원, 산짜사원, 다낭대성당	대만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지요궁, 101빌딩, 라오하계 야시장, 서문장거리, 태로산현구, 화원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죽문화촌, 아류해양 국립공원, 자우먼거리	싱가폴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워터스, 샌드스 웨이 브릿지, 하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메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트사섬, 실로스비터
--	---	--	---	---	---

겨울골프 & 가족여행

캐나다 4박 5일 \$1,590+항공 부터 5박 6일 \$1,890+항공 부터 6박 7일 \$2,290+항공 부터 *All Inclusive 호텔	도미니카 3박 4일 \$1,290+항공 부터 4박 5일 \$1,390+항공 부터 5박 6일 \$1,590+항공 부터 *All Inclusive 호텔
올랜드 3박 4일 \$995+항공 부터 4박 5일 \$1,290+항공 부터 5박 6일 \$1,590+항공 부터 *호텔 혹은 타운하우스 가능	코스타리카 3박 4일 \$1,099+항공 부터 4박 5일 \$1,199+항공 부터 5박 6일 \$1,399+항공 부터 *골프 안치는날 관광 가능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일출발 나이아가라/토론토/천섬 몬트리올/퀘벡/플레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미동부 베스트셀러 일출발 뉴욕/브루클린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핵심적인 동부 명소 관광지만 쏙쏙 뉴욕 일출발 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대 \$100 마운트버논 & 루레이동굴 \$125 알렉산드리아 \$150 필라델피아 \$150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티켓구입 가능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록키 칼거리 출발 3박 4일 \$850+항공

엘로나이프 3박+ **록키** 3박 \$16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병립형 비례제 급선회... 이낙연 신당 견제용?

지도부, 오늘 선거제 의총 앞 시사

준(準)연동형 선거제로 전환하는 듯 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 관련 의원 총회를 하루 앞둔 24일 갑자기 '병립형 선거제 불가피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원래 병립형을 선호하던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한때 당 원로그룹 등의 압박 속에 준연동형을 수용하는 듯했지만 막판에 뒤집히는 분위기다.

정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다른 당을 도을 만큼 민주당이 여유롭지 않다"며 "총선은 자선사업이 아니다"라고 썼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도 통화에서 "지도부 안에 선 병립형 선호가 강하다"고 말했다.

선거제 난상토론이 있었던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소수정당이 난립하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도 이전투구로 비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다수가 "병립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다만, "지역주의 해소" 명분을 위해 비례대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의 급선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원욱·김종민·조응천) 등 '이탈 민주' 신당 등장과 무관치 않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제3지대 신당은 연동형 비례제 없이는 원내 진입이 어렵다"며 "민주당을 찌를 정당이 국회에 들어오게 둘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병립형 회귀는 한 번 욕먹지만, 위성정당 창당은 두고두고 욕먹는 일"이라고 말했다. 준연동형제 실시는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 약속이지만 위성정당 급지는 최근까지 민주당이 공인한 터라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선거제 개정안 합의 실패



'민주당' 글자 키운 새 로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글자를 부각한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Party Identity)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새 PI에는 세 가지 색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삼색 깃발이 들어갔다. 왼쪽부터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전민규 기자

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준비는 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만 위성정당을 두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밖에선 준연동형 고수를 전제로 한 범(汎)야권 '비례연합정당' 주장도 계속된다. 우

원식 의원(4선)은 의원 30여명과 함께 "윤석열 정부 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구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입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가 세입자, 갑질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한 열정을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에 LH 직원들이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폭로한 장본인이다. 이후 정부의 합동수사로 425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64명이 구속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부에는 결정타였다. 이 대표는 "평소에 자주 보던 김 변호사"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당은 8년 만에 로고를 바꿨다. '더불어' 글자의 크기는 이전보다 줄이고, '민주당'은 더 굵게 부각됐다. 파랑, 보라, 초록색이 들어간 삼색 깃발 배경도 공개됐다. 각각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하며 시대에 맞는 다양한 가치를 품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강보현·손국희 기자

우뚝선 7.5m 디지털 광개토태왕비

광개토태왕릉비 원석타본을 소장하게 된 국립중앙박물관이 고구려실을 개편하고 고구려 콘텐츠를 강화한다. 올해 선사·고대관을 전면 개편할 방침인 박물관 측은 우선 상설전시관 로비('역사의 길')에 광개토태왕릉비를 재현한 발광다이오드(LED) 미디어 타워를 세웠다. 또 원석타본에 기반을 둔 초대형 조각도 내걸어 우리 역사 속 고구려의 존재감을 확 키웠다.

윤성용 관장은 24일 신년 업무계획을 밝힌 기자간담회에서 "삼국 역사 중에 현재 국경 바깥에 있어 국외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곳이 광개토태왕릉비"라며 "지난해 원석타본을 구매한 것을 계기로 '역사의 길'에 디지털 복원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개한 디지털 광개토태왕비는 높이 7.5m(받침대 포함 8m), 너비 2.6m 크기의 직육면체형 미디어 타워다. 중국 지안에 있는 최대 높이 6.39m 비석을 4면 그대로 재현해 실제 위용을 짐작케 했다. 비석은 장수왕(재위 413~491)이 아버지 광개토태왕(재위 391~412)의 업적을 기려 414년께 세웠다. 4면을 돌아가며 고구려 건국 신화, 왕의 즉위, 광개토태왕의 업적, 왕의 무덤을 관리하는 규정 등을 총 1775자의 비문으로 새겼다.

박물관은 이번 디지털 재현 과정에서 한학자 청명 임창순(1914~1999) 선생이 소장했던 원석타본 '청명본'을 바탕으로 삼았다.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국립중앙박물관이 원석타본을 기초로 제작한 디지털 광개토태왕릉비를 상설전시관 로비('역사의 길')에 설치하고 24일 공개했다. [뉴시스]

은 한·중·일 등에 120여종이 전해지는데, 무분별한 석회타본 전의 원석타본은 18종뿐이고 국내엔 그중 3종이 전해

진다. 박물관 측은 지난해 청명본을 구매한 뒤 일부 훼손되고 빠진 글자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다른 기관 소장본과 대조해 보완했다. 그렇게 1개 면씩 비문을 원본 크기대로 프린트한 대형 조각(총 4개)도 역사의 길에 함께 전시했다. 청명본은 고구려실에 상설 전시한다.

윤 관장은 "광개토태왕릉비 원석타본을 상설전시하는 것은 2005년(박물관) 용산 이전 이래 숙원 과제였다"며 "고구려실도 올해 안에 현재의 2배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윤상덕 고고역사 부장은 "근래에 남한에서도 발굴 성과가 많이 축적돼 학계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가 고구려실이었다"고 확장 배경을 부연했다.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의식했는지 묻자 윤 관장은 "그보다는 10~12년 단위로 이뤄지는 상설관 개편 및 탁본 확보가 제일 큰 배경"이라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지난해 소속 지역박물관을 합쳐 관람객 10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주요 유물의 지역 순회 전시 구상도 밝혔다. 금관, 가마인물형토기, 상감청자, 백자 달항아리 등 6종 구성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학예인력 전문교육 확대 등 5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고이건희 삼성 회장 기증품 순회전시는 올해부터 미국 시카고박물관 등 해외로 넓혀 이어간다. 강해란 문화선임기자

'조기부왕' 세운 회사, 경영악화에 전직원 해고 통보

'1조 기부왕'으로 유명한 이종환 삼성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이 50년 일궈낸 경남 김해 소재 타일 제조업체 삼영산업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 회사는 최소 120억원의 회사 자산을 관정이중환교육재단(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별세 전까지 회사 지분 99%를 가진 대주주였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영산업은 2020년 124억5300만원 상당의 회사 기계장치를 재단에 출연하고 기부금으로 처리했다. 그해 삼영산업은 151억원 넘는 손실을 봤다. 회계법인은 이런 내용과 함께 "자기자본이 105억5400만원에서 (-)46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재했다. 1972년 설립된 삼영산업은 최근 4년간 매년 영업손실이 커졌다. 2020년 이후 부채가 늘었고, 현재 누적부채가 160억원이다. 전반적인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앞서 삼영산업은 2007년에도 회사 건물과 부지를 재단에 기부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해 회사 건물과 그 부지(1559㎡), 공장 부지 일부(12만9245㎡ 중 8만279㎡) 소유권이 회사에서 재단으로 이전됐다. 삼영산업은 그간 건물 및 공장 부지 등과 기계장치(설비) 등을 재단에 임차료를 주고 사용했다. 삼영산업은 당장 이달 말 만기인 금융권 채무 17억원을 갚을 돈이 없다고 한다.



삼영산업의 경남 김해 본사. [사진 삼영산업]

한기문 삼영산업 대표는 "건물·토지·장비 등이 모두 재단 소유여서 담보 잡아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며 "(2020년 기계장치를 기부할 당시) 이렇게 되면 회사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환) 회장님이 계셨더라면 (해고 직원) 퇴직금 등을 말씀하게 정리해주셨을 텐데, 자녀분이 상속을 포기해 주인 없는 회사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해고를 통보받은 직원은 130명 정도다. 직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5년간 근무했다고 한다. 서무현삼영산업노조 위원장은 "체불 임금 없었지만 당장에 급한 건 직원 퇴직금 32억원"이라며 "갑자기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이종환 명예회장은 2002년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을 해왔다. 재단 기부한 재산이 1조7000억원이다. 재단이 지원한 장학생 수는 지난 23년간 1만2000여명이다. 2012년에는 서울대 전자도서관 건립에 600억원을 기부했다.

김해=안대훈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44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AN. 25th - FEB. 1st, 2024

맛있는 김을 고소하게
— **assi** —

유기농 구운 김밥김 스페셜

ASSI ORGANIC ROASTED LAVER (YAKI SUSHI NORI)



~~\$13.99~~ **\$9.99**
100 SHT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erling, VA
30 Pid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15000 Greenbush Court,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895 Merriwell Dr,
Chantilly, VA 20151

Arlingdale, VA
4204 Pine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0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301 Lees Street,
Herndon, VA 20130

E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icott City, MD 21041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807 Vie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3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고용부 ‘중대재해’ 대응할 인력 부족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 약화 우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던 ‘2년 적용 유예’ 법안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야당 반대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선 “동네 뺑뺑이까지 범법자로 만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최대 3년의 유예기간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유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법 관련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는 데엔 실패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확대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마지막 기차를 떠나보냈다는 평가다.

기업 83만곳, 근로자 800만명이 영향권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여당과 경영계에선 2년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83만 7000개의 50인 미만 기

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뺑뺑이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흔히 생각되는 제조업·건설업뿐 아니라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일지라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순간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종사자 수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건설금액 기준은 하한

적용 범위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처벌 대상	•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
보호 대상	• 노동자(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 제공)		
중대산업재해 (요건 하나 이상 해당)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6개월 이상 치료 필요 한 부상) •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같은 유해 요인)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경영책임자 준수 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유예기간	•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예정		

선이 없어 사실상 전국 모든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대한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설기업의 99%가 넘는 중소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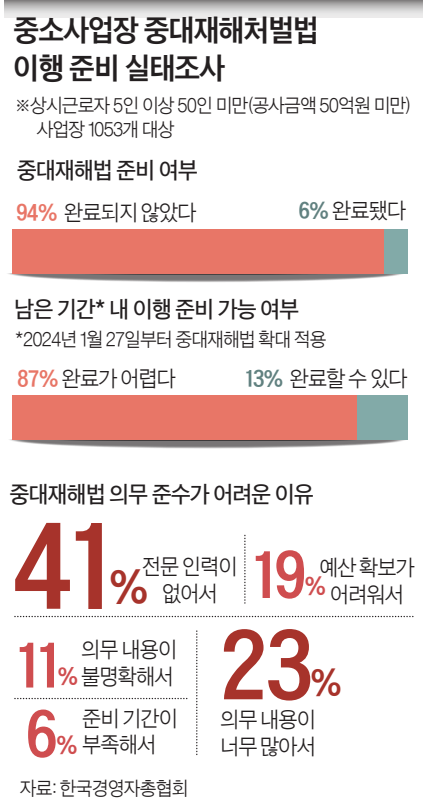
“유예기간 3년간 정부는 뭐했나” 지적도
이대로 확대 적용되면 당장 중대재해 수사 현장에도 혼선이 불가피하다. 지금도 중대재해 사건 수사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노동청 내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소속된 수사관은 정연 100명에 정연 외 인력까지 끌어들이 총 13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용부가 수사 혹은 내사한 중대재해 사건은 510건으로, 이 가운데 33건만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중대재해 수사관 정원이 고작 10여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수사 인력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중대재해법 대상 사업장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업무 부담은 커지고 사건 처리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644명 중 60.2%인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이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확대 적용 시)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2021년 1월에 제정된 이후 약 3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안전 보건 의무를 고쳐야 했다”고 밝혔다.

민중노총은 이날 “고용부가 경제단체의 호소만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의 발단이 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유예하게 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OS 사용 강제한 구글... 법원 “2249억 과징금은 적법”

(서울고법)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강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사가 자체 OS를 만들 길이 열렸지만, 이미 구글과의 협력이 공고한 상황에서 사실상 새로운 OS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서울고법 행정 6-3부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구글이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를 상대

로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제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과징금 2249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새로운 스마트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 이후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안드로이드 OS가 다양한 기기에서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구글의 정책)이 한국 기기 제

조사 및 앱 개발자의 글로벌 확장·성공에 기여했고, 한국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구글의 청구를 기각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전 세계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재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것을 가장 크게 문제 삼았다. AFA는 기기 제조사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포크OS(구글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할 수도 직접 개발

할 수도 없게 한 계약이다.

구글이 만든 OS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OS로 스마트폰 태동 초기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구글은 점유율이 높아지자 이른바 ‘파편화 금지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야 기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다만 안드로이드가 아닌 아예 별개의 OS를 구축해 안드로이드와 다른 닫힌 생태계에서 유통되는 기기를 만드는 것만

허용된다. 공정위는 독자 기기제조와 OS 탑재 생태계를 구축한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실상 독점 체제를 구축해 애플과 수수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자체 개발 OS를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이미 굳어진 OS 양강 체제와 구글과의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다시 OS에 힘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많다.

김남영·김정연 기자

“THE FIRST OR NOTHING”

Tyson's Office: 8000 Towers Crescent Drive, FL 13, Tysons, VA 22182
Phone: 703-278-2773
Kakao Channel: 제이앤비에세이컨설팅
Email: pct@jbessay.com
Website: www.jbessay.com

GREEN

Essays for Kids (Grades 5-8)

VIOLET

Boarding Admissions (Grade 8)

BLUE

Essay Contests (Grades 8-11)

ORANGE

Journals (Grades 9-11)

BROWN

HYPs Portfolios (Grades 10-11)

RED

College Admissions (Grade 1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또 그래?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지치고 힘든 위장을 위하여
위에 좋은 성분만 가득 담았습니다!

청정지역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 있는 우메켄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제도아리(자색강황)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위장 건강에 탁월한 발효 양배추, 여주, 생강 및 5가지 약초가 함유되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아리로 당신의 위장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하루도 튼튼해집니다!*

- 제도아리 (자색강황)
- 발효 양배추
- 여주
- 생강
- 5가지 위장에 특화된 약초

위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오키나와 제도아리
\$10 할인
-1/31 까지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위장은 건강하리!*

-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 쉽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분
 - 소화 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우메켄 소화효소!

지방 분해 리파아제

단백질 분해 프로테아제

섬유소 분해 셀룰라아제

탄수화물 분해 아밀라아제

유제품 분해 락타아제

5대 소화효소 함유

Shouka Koso

쉽게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위산과다, 식후 무기력증이 심한 것은 몸속에 부족한 소화효소!

위, 소화를 위한 효소 총집합
우메켄 소화효소(고립)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소화효소 \$10 할인
-1/31 까지

여권 갈등 속 친한계 급부상... 전략공천지 50곳 새 지뢰로

한동훈 “김경울 사퇴? 들은 바 없다”
‘용산 출신’ 공천 두고 대립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민생 행보를 재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열린 대학생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력에겐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지만 지금의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크다”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늘려 달라는 건의를 받고선 “지원액을 대폭 늘리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전엔 여의도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국민의힘 당사를 차례로 돌며 당직자들을 만났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후드집업을 선물 받고는 “제가 더 잘하겠다. 4월 10일에 꼭 이겨 보자”고 말했다고, 몰려든 당직자들과 일일이 셀카를 찍기도 했다.

지난 21일 돌출한 용산 대통령실과의 충돌을 마무리짓고, 한 위원장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모습이지만 여권엔 여전히 불안감이 흐른다. ‘윤·한 갈등’을 재점화할 요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친한(親韓)계가 급부상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이번 총선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김경울 비대위원뿐 아니라 장동혁 사무총장도 도드라진 모습이었다. 장 사무총장은 친윤계 이용 의원이 지난 21일 의원 단체 채팅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공유하자 다음 날 KBS 라디오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도 24일 국회 출근길에서 ‘김경울 비대위원이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적극 방어했다. 당내에서 “한 위원장에게는 ‘좌(左)경울, 우(右)동혁’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2월 국회 때 재표결될 가능성이 큰 ‘김건희 특검법’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최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 2명 등 11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권 의원 183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져도 최종 부결된다. 하지만 이 경우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김 여사 옹호’로 비춰져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고민 지점이다.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야 하는 한 위원장 입장에서 ‘표결에 참여하되 당론 부결을 하자’고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 공천도 남아 있는 뇌관이다. 지난 23일 당 공관위는 2차회의를 열고 지역구 253곳 중 최대 50곳을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역의원 공천 배제 지역이나 최근 3회 연속 패배 지역이 대상이다. 수도권 전직 당협위원장은 “역대 총선마다 늘 갈등이 폭발한 게 전략공천이었다”며 “용산 출신을 더 넣으려는 대통령실과 그걸 막으려는 한 위원장 측 사이에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등의 발단이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대응 방안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측 입장 차도 여전하다. 김 여사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통화에서 “합정 물가의 피해자인 김 여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비열하지 않게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성·현일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운동권 정치인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뉴시스]

강경하던 한동훈, 대통령 앞 깎듯... ‘아웃복싱’ 화제

한 위원장 ‘싸움의 기술’ 당내 회자

용산 대통령실과 충돌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싸움의 기술’이 여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질문에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위해 가겠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라며 화제 전환에 주력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선 고개를 90도 숙였다. 앞서 지난 21일 밤 ‘이관섭 대통령비

서실장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 이후 여권은 초비상 상태였다. 한 위원장은 곧바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비대위원장 수형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스타일 변화를 두고 당내에선 “아웃복싱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은 “한 위원장은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을 내치려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자 발톱을 드러내고 강력히 대처했지만, 막상 윤 대통령을 만나서는 90도 풀더 인사로 자신을 최대한 낮췄다”고 말했다. 상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다가 기회를 맞이

할 때 포인트를 올리는 ‘아웃복싱(out boxing)’과 유사하다는 뜻이었다.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위원장은 아웃복싱보다 ‘인파이팅(infighting)’에 가까운 스타일이었다. 국무위원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해서도 야당 의원의 질문에 송곳 같은 답변을 하며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 위원장이 최근 갈등 국면에서 상반된 모습을 선보이자 한 조선 의원은 “입기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이고, 본인과의 인연이 깊었던 권력자와 관계를 맺으려면 예의와 소신을 넘나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당분간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당헌 명시

개혁신당 “사회적 보수를 지향”
기호 3번 경쟁, 정의당 입지 불안



24일 합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왼쪽)·양향자 한국희망당 대표. 전민구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희망당이 합당을 선언했다. 두 사람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유지하고 한국의 희망을 당 슬로건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당헌에 “문제 해결의 기본 접근법, 곧 국정철학으로 ‘사회적 보수’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인 당원은 당내 경선, 공

천, 징계 등 주요 당무에 일체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도 당헌에 담았다. 사안마다 윤심(尹心) 논란을 겪어온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정강정책에선 보수를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세력’ “다양한 시대적 과제에 다 같이 협력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 모두를 그 길로 이끌려는 세력” 등으로 표현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

의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결심을 주변에 알렸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돼도 4·10 총선에서 정의당 의석수(6석)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오는 30일 이후엔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어도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회기 중 현역 의원 사직에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비례후보 경선 전에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2월 이후 의원직을 잃으면 정의당은 5석으로 총선에 나서야 한다. 정당 기호는 후보등록 마감일(3월 22일) 의석수에 따라 부여되는데 현재대로면 정의당이 3번이던 입지가 불안하다. 정의당 관계자는 “제3지대 신당이 현역 영입에 나서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 기호 5번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당을 예고한 류호정 의원의 당직이 이번주 정리되고 이 의원이 사직하면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장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 자리를 승계한다.

이창훈·김정재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infokdd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학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후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환주동시 및 전액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에난데일 **703-354-1515**
 2층 오픈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랜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팬텀2 **펠리스2**

팬텀 로보!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안마의자인가 의료가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가기다!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PHANTOM Medical Care

5 YEAR WARRANTY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KOREA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연합회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펌프다이얼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묵직한 에어백
- 손지압 패드
- 강화된 안전센서
- 3단계 온열
- 자동 체형 인식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쓱** 내 몸에 **쓱**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특가 세일**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신속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휴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를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천연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명품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원적외선 명품매트 **\$1,199** (원시리즈)
\$899 (싱글시리즈)

황토세라믹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원천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워런티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청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발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지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영광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가성비 최고** **피톤치드** **독특한**

슬드 라이프

전지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몽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일월개화** **원적외선 매트**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원적외선 매트로 불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종결/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김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울 겨울 따뜻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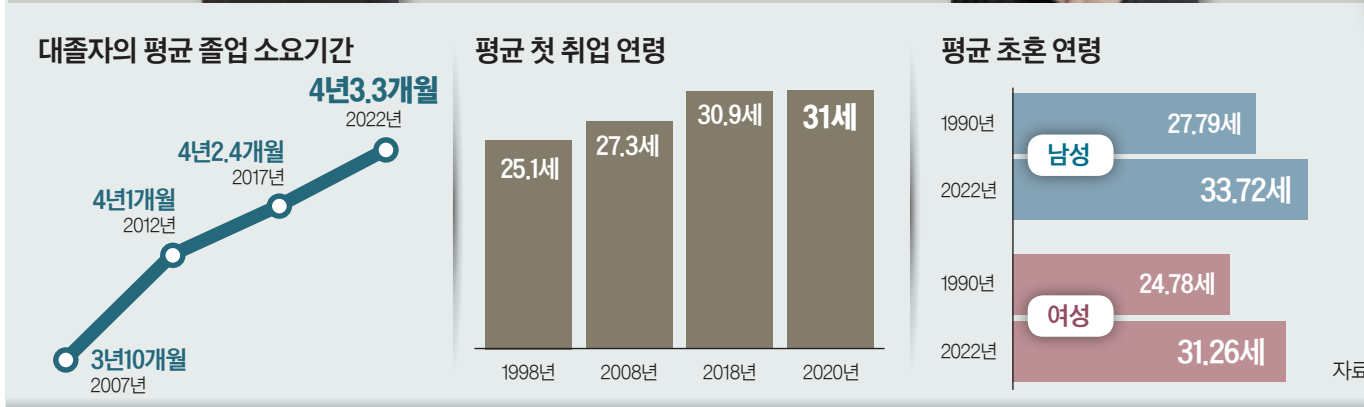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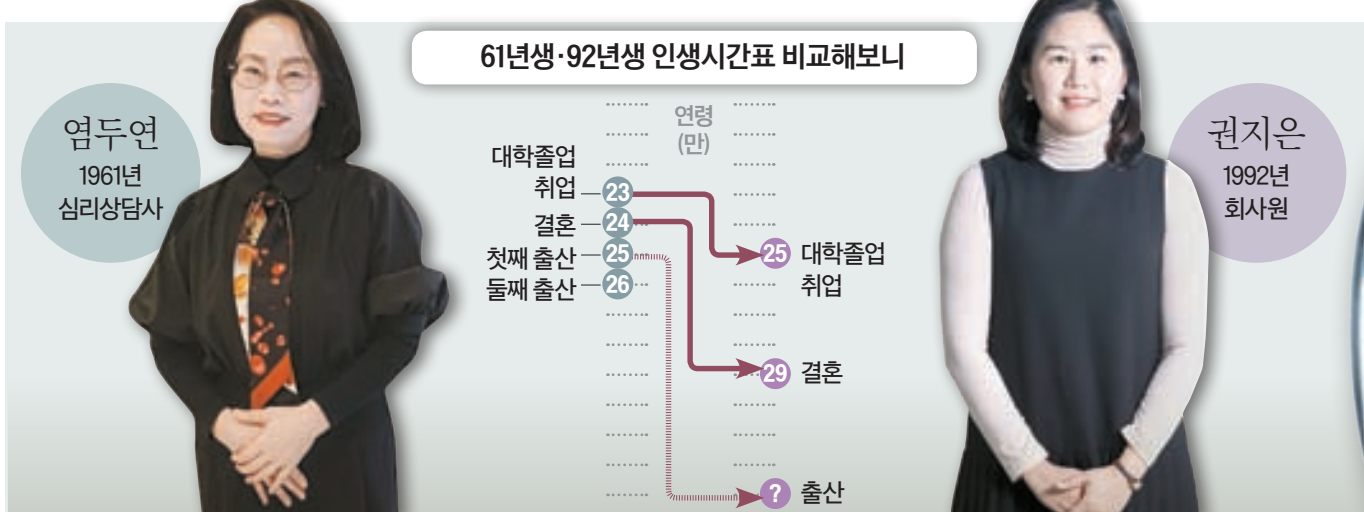
스팀보이는 **건강 보일러** **Safety Steam**

엄마세대 자녀 낳은 25세에 딸세대는 대학 졸업

1964년생 황무학(60)씨는 대학 진학부터 졸업·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거침없이 지났다. 1983년 고교를 졸업하며 바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고 8학기 만에 졸업했다. 이후 2년간 군 복무 후 25세에 시중의 한 은행에 단번에 합격했다. 같은 해 곧바로 결혼한 황씨는 27세에 첫째, 28세에 둘째를 품에 안았다. 황씨는 “30대 초반부터 회사에선 초급 관리자 역할을, 가정에선 두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했다”고 했다.

93년생 김도경(31)씨는 달랐다. 김씨도 2012년 19세에 바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따느라 졸업은 서른 살인 지난해 2월에 했다. 군 복무 기간을 빼고도 9년이 걸렸다. 지난해 공무원인 부인과 결혼했지만, 아직 2세 계획은 없다. 두 사람의 직장 경력과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출산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약 10년 동안 교재했지만 모아둔 돈이 없어 취업 전까지 결혼을 미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부모 세대(86세대와 X세대)보다 인생의 전환점을 N년씩 늦게 맞는 ‘유예 세대(Delayed Generation)’가 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2001년생 23세 대학 재학생부터 87년생인 37세 직장인까지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다.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취업·결혼·출산 등을 늦추거나 포



2030 인생유예 시작은 대입 N수 작년 N수 신입생 비중 역대 최고 MZ세대 ‘취업·결혼 필수 아니다’

‘잃어버린 N년’ 사회 비효율 확대 저성장에 좋은 일자리 경쟁 격화 ‘인생속제 미룰 수밖에 없는 구조’

기하고, 경제활동이 늦어진 만큼 실질 소득과 자산이 줄었다.

남성인 김씨는 황씨보다 대졸·취업·결혼을 각각 5·4·5년씩 유예했다. 여성도 비슷했다.

1961년생 엄두연(63)씨와 92년생 권지은(32)씨를 비교해 보니, 졸업과 취업, 결혼이 각각 2·2·5년씩 늦었다. 엄씨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피아노·미술 학원에서 일하다가 이듬해 결혼했다. 25·26세 때 첫째·둘째 아이를 낳았다. 반면에 권씨는 6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취업 전 스펙을 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고, 한 학기를 휴학해 인도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올해 32세인 권씨는 “주변에 비해선 빨리 결혼한 편이라 출산은 천천히 한 명 정도만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유예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는 2019년 2월 ‘밀레니얼 라이프’ 조사 보고서에서 밀레니얼 세대(1981~96년생)는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이전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취업은 늦어지고 결혼은 늦추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N년 유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의 잃어버린 N년은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같이 사회 전반에 비효율을 높인다.

인생 유예의 시작은 대입 ‘N수’부터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입학생 33만439명 중 고교 졸업자가 바로 입학한 ‘현역’ 비율은 68.2%였다. 1994년 수는 도입 이래 최저치다. 반대로 N수생은 8만5872명(26%)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입학생 넷 중 한 명이 N수생이라는 뜻이다. 김경범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이공·의학 계열에서 재수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입학에 이어 졸업 유예도 보편화됐다. 취업을 위해서다. 휴학률(전년도 재적 학생 대비 휴학생 수)이 80년 10.6%에서 2022년 24.8%로 2.5배로 늘었고, 첫 취업 평균 연령은 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약 6년 늦어졌다(취업포털 인크루트).

이는 결혼·출산 유예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2022년 사이 초혼 연령은 남성 27.8세→33.7세, 여성 24.8세→31.2세로 각각 6년씩 늦춰졌다. 초산도 같은 기간 25.9세→33.5세로 7년 넘게 늦어졌다. 지난해 11월 출산한 강지윤(34)씨는 “산후조리원 동기 18명 중 초산인 14명의 평균 나이가 35세였다”며 “20대 후반인 엄마는 한 명뿐이었다”고 말했다.

유예 세대는 낮은 성장률과 경직된 노동시장 등 사회경제적인 구조 속에

서 생겨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교육·문화 수준이 높아졌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며 “인생 속제를 이행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MZ세대 사이에선 ‘취업과 결혼, 출산이 더는 ‘인생의 필수 과업’이 아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정구(37)씨는

“프리터(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비혼자, 딩크족(맞벌이 하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 친구가 무리하다 한 명씩 꼭 있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N포 세대’는 취직·결혼·출산을 포기한 게 아니고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미뤘던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은 행복의 족쇄”라는 가치관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유예 현상이 10년을 갈지, 끝없이 지속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혜연·김서원·이아미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케어 크레딧**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인비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유니티 보험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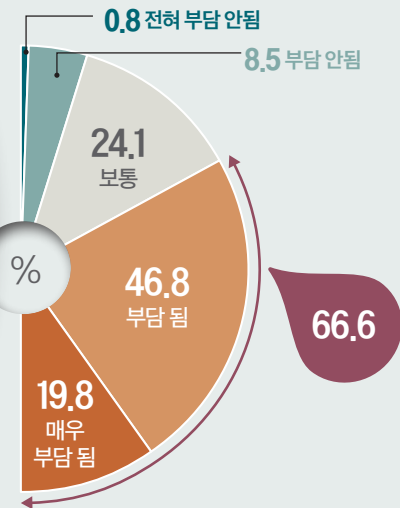
VA Lic# 639047

독립 않는 썩거루족 자녀 때문에 ... 5060은 '은퇴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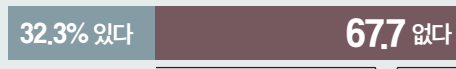
은퇴 후 자녀부양 부담 얼마나 느끼나

자료: 보험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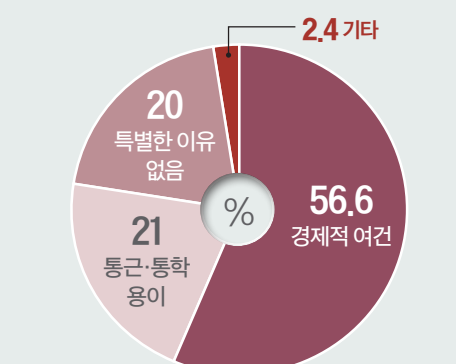


청년들, 구체적 독립계획 있나

자료: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19~34세)삶 실태조사'



청년들, 부모로부터 독립 안하는 이유



1차 베이비부머

·1955~63년 출생
·6·25전쟁 뒤 태어나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끈, 외환위기·금융위기 겪고 은퇴를 앞두고거나 은퇴함.

2차 베이비부머

·1964~74년 출생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기를 겪음. '고학력·고소득자 비율이 높아진 첫 세대.'

86 세대

·1960년대생
·1980년대에 대학을 입학해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

MZ 세대

·1980~2010년대 초반생
·'밀레니얼+Z' 세대를 통칭. 디지털·모바일에 익숙하고 개성과 삶의 가치 중시함.

유예 세대

·1980~2000년대 초반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학 졸업 및 사회 진출, 취업·결혼·출산을 미루거나 계획 안함.

세대론 변천사

'금융위기 직격탄' 80년대생부터 유예세대 본격화

(2008년)

취업난에 졸업 유예가 트렌드 돼 저성장 굳어지며 연쇄 흐름으로

한국에서 젊은 세대의 '인생 유예' 현상이 본격화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 시기는 'MZ세대(1980~2012년생)'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때와 맞물렸다.

성장 여력이 있었던 과거엔 오일 쇼크 같은 국제 위기가 와도 청년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15~29세)은 3년 만에 회복됐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탄력이 급격히 둔화됐다. 경제성장률은 3% 안팎, 잠재성장률은 2% 안팎으로 '저성장' 추세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처음 도입된 대학 졸업 유예제는 2000년대 후반에 폭증했다. 2008~2012년에 졸업 유예제를 도입한 대학(51.4%)이 그 이전 도입한 대학(38.2%)보다 훨씬 많았다. 구경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 없는 성장기에 사회에 진출한 80년대 중후반생을 중심으로 졸업 유예하는 게 트렌드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혼인 건수도 2003년 30만 건까지 줄었다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34만 건으로 늘었지만, 이후 2022년 기준 19만 건까지 급감했다(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젊은 세대가 '인생 시계'를 늦추는 건 세계적 추세라는 시각도 있다. 진 트윈지 샌디에이고주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저서 『제너레이션: 세대란 무엇인가』에서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 파급력이 주택 구입, 학자금, 교육 등 다양한 문제로 가난을 느끼게 한다"며 이 탓에 "유예 세대는 '느린 성장' 때문에 불만·우울이 깔려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삼미 기자

노부모·자녀 동시부양 '낀세대' 19~34세 절반이상 부모와 동거

경기도 오산에 사는 박미령(가명·55)씨는 17년 차 보험설계사다. 하지만 당분간 일을 그만둘 수 없다. 대학교 2·4학년인 두 아들의 학비를 대며 어머니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들 1명당 한 학기 등록금 420만원에 매달 용돈 50만원이 든다. 고령(99세)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는 데도 매달 70만원이 필요하다. 친언니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는 대신, 남은 형제자매가 각출해 생활비와 간병비를 대고 있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과 열심히 맞벌이 중이지만, 노후를 위해 저축하기엔 빠듯한 형편이다. 박씨는 "남편 공장을 지으며 대출도 잔뜩 받은 상황"이라며 "남편이 몸을 주로 쓰는 엔지니어여서 현재 수준으로 계속 벌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년 중 절반 이상은 이른바 '썩거루족'(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자녀들)이다. 2022년 3월 국무조정실이 만 19~34세 청년이 속한 전국 약 1만5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율이 57.5%에 달했다. 이들 중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67.7%나 됐다. 독립을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56.6%)가 가장 많았다. 의정부에 사는 이모(64)씨는 "딸 둘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에도 집에서 출퇴근했다"며 "아직 미혼인 둘째 딸이 결혼할 때 뭐라도 보태야 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유예 세대(Delayed Generation)'의 독립이 늦어지며 50·60대 부모 세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은퇴

를 했거나 앞두고 있지만, 자녀의 만혼·비혼, 늦깎이 취업 등으로 양육 부담을 계속 지고 있다. 또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기간도 늘었다. 이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는 뜻으로 '마쳐(마지막+처음) 세대'로도 불린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낀 세대"인 이들은 은퇴를 준비하는 동시에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동시에 짊어줘야 해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부모 부양자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가족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 63.4%에서 2022년 19.7%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4%에서 62.1%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양 부담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2차 베이비부머(50~60세)와 노령기에 접어든 1차 베이비부머(61~69세)에게 각각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학력 비율이 높고 비교적 건강한 인적 자원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겐 단순 업무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선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일자리 수만 늘리기보다는 고령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고 사회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삼미 기자

초등생 1학년 원하는 누구나, 밤 8시까지 학교서 돌본다

늘봄학교, 9월 전면 도입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봐주는 '늘봄학교'가 오는 9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3월 새학기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 학교가 30곳 문을 연다.

24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으로 인구 감소,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교육부는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시작한 늘봄학교를 올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통합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정책이다. 기존의 돌봄교실은 보통 오후 5시까지 운영하다

보니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방과 후 보육 공백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늘봄 시범학교 459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학기에는 늘봄학교를 2000개교 이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연차별로 확대한다.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늘봄학교에선 희망하면 누구나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2학기부터는 초등 1학년, 내년에는 1~2학년, 2026년엔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이 희망하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예비 초1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이를 토대로 전체 신입생 34만명 중 28만명 정도가 올해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관련 인력도 충원한다. 늘봄학교 확대 방침이 나온 후 교원단체

에서는 교원 업무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각 학교에 교장실·교무실·행정실처럼 '늘봄지원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책임자인 늘봄지원실장도 임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1학기를 과도기로 보고 늘봄 관련 행정업무를 볼 전담 기간제 교원을 2250명 신규 채용한다"며 "내년에는 모든 늘봄 행정 업무가 교원에서 늘봄지원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월 HOT 리스팅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페어팩스
법원부근
타운홈**

방3+화2, 차고2
2767 sqft, 1996년
\$825,000

**페어팩스
옥슨 교교부근
타운홈**

방3+화3.5, 차고2
2188 sqft, 1999년
\$900,000

**페어팩스
피켓로드부근
싱글홈**

방5+화4.5
3970 sqft, 2004년
\$1,4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530,000

**애쉬번
타운홈**

방3+화3.5, 차고1
1995년
\$500,000

**애난데일
콘도**

방1+화1
\$225,000

**페어팩스
콘도**

방2+화2
1214sqft, 1997년
\$403(콘도비)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메릴랜드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6701 Democracy Blvd., #300

Fairfax, VA 2203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우리말 바꾸기

유홍주 칼럼

엄한(?) 일 만들지 마시다

한국 의회는 운동권에 휘둘린다

끝내야 할 일의 마감 시한이 닥쳐오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 “해야 할 일은 제쳐 놓고 엄한 일을 붙들고 있다”고 표현하곤 한다.

나이 90이 지난 필자는 워싱턴에서 50년을 살고 있으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있는 참전 용사다.

이처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엉뚱하게 느껴지는 경우 ‘엄한 일’이라고 표현하기 일쑤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말일까? ‘엄한’은 ‘엄하다’를 활용한 표현으로, ‘엄하다’는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철저하고 바르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다. 즉 ‘엄한’은 ‘엄격한’과 비슷한 의미이므로 “엄한 일 만들지 마라”는 “엄격한 일 만들지 마라”와 같은 뜻이 돼 영 어색한 표현이 돼 버린다.

80년대 광주항쟁을 거치며 학생운동권의 급진화가 시작됐다.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도입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마침 소련·사회주의권이 붕괴되었다.

북한 또한 체제경쟁에서 실패한 조라한 모습으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6월의 거리에서 혁명 사상을 무장하고 싸웠던 청년 거의 전부가 자신들이 불과 한 두 해 전에 거품을 물고 주장했던 사상이 틀렸음을 회의·부정·반성하지 않았다. 90년대 그들은 20~30대 나이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학원 강사나 교사가 되었고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386의 리더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후견 아래 성공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했다. 특별히 유리했던 것은 2004년 노무현 탄핵,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등을 계기로 진보 우위의 정세가 열렸다는 점이다. 이들은 순조롭게 다선 의원이 되었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다시금 급진주의의 시대가 열렸다.

2013년 세월호,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을 배경으로 이른바 촛불민주주의가 대두된다. 이 촛불민주주의를 배경으로 전통적인 학생운동권은 아니지만 운동권 흉내를 내는 이미지·미디어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다.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등이 그런 인물이다. 넓게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속한다. 양자는 양립할 수 없다. 그러한 변신이 가능했던 것은 민족해방투쟁의 관점에서 2000년대 거리 민주주의를 변형했기 때문이다.

민족해방투쟁의 관점이 유지된 것은 첫째, 세상을 선과 악, 선한 민중과 악한 기득권자의 대립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으로 보는 점, 둘째, 악한 기득권자는 뿌리가 친 일파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점 셋째, 양자의 대결은 거대한 대중항쟁을 통해 해결된다는 점 등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70명 정도가 운동권 이력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분적으로 차용했다.

민주주의는 궁극의 주권을 국민에 두면서도 권력분립, 대의제 민주주의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둔다.

2000년대 촛불민주주의가 헌법을 중시하는 이유는 거리대중, 대중항쟁에 사용하기 위함으로 이 맥락이 80년대 중반 민족해방운동의 거리항쟁과 내용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80년대 중후반 민족해방운동의 관점에서 거리에서 싸웠던 청년들은 90년대 초반 사회주의 몰락에도 자신의 생각을 유지했고 2000년대 촛불 민주주의 과정에서 교묘히 자신의 주장을 변형시켜 80년대 학생 시절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2000년대 촛불 민주주의의 상당 부분은 2000년대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80년대 급진주의의 내용적 계승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 70명 정도가 운동권이다. 이는 민주화운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학생운동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역사와 철학을 동원하고 수리계량적인 방법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민주화운동의 이런 특징 때문에 문학, 역사, 철

학 등 이른바 문사철 분야가 학생운동을 과잉 대표하게 된 것이다.

80년대 학생운동이 영미 계열의 민주주의보다는 맑스, 레닌주의나 주체사상과 연관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고로 2015년 삼성전자 임원을 분석하면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50세 남성 엔지니어’이다.

이와 대비해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운동권 출신들은 중상위권 대학의 문과 출신의 국내파들이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핵심 권력기구에 호남 출신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운동권 출신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촛불을 배경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얼마든지 탕평책을 쓸 수 있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사망, 2013년 촛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배경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21대 국회가 성립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21대 국회의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선택의 폭이 컸다. 그럼에도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이재명 민주당과 함께 심각한 진통과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운동권 출신에 남아 있는 80년대 운동권 급진주의 때문이다. 친북·친중적 세계관, 소득주도성장, 최저 임금제 등 낭만적인 경제이론, 검경 갈등 등 권력기관에 대한 태도 모두 70~80년대 운동권 급진주의의 직접적 연장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여전히 운동권 급진주의가 강하게 온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4월 총선은 운동권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시험대가 될 듯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독자마당

시카고 여행

얼마 전 20여일간 시카고 여행을 다녀왔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다니 항공료는 많이 들지 않았다.

시카고의 별명은 ‘바람의 도시(Windy City)’다. 시카고는 미시간호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호숫가에는 나무를 심어 공원을 조성했고 이 나무들이 방풍림 역할도 하는 듯했다. 공원을 따라 길게 대로가 있는데 미시간 애비뉴였다. 이 도로를 따라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고 차츰 건물이 낮아지면서 서쪽으로 도시가 뻗어 나간 형태였다.

시카고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은 건물이 있었는데 윌리스타워(구 시어스타워)였다. 이

빌딩 꼭대기에는 시카고 시내를 360도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시카고는 지난 1871년 300명이 숨지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 대부분이 목재로 지어진 것이어서 피해가 컸다. 이후 도시 재건에 사용된 건축 자재는 주로 돌과 시멘트였다.

시카고는 마피아들의 활동 무대로도 유명했다. 1929년 밸런타인데이에는 악명 높은 알 카포네 부하들이 반대파 갱단 조직원 7명을 링컨 공원 근처로 유인해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들

은 끝내 체포하지 못했다. 당시 범행 장소는 지금은 아파트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시카고에는 박물관이 많다.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예술박물관(Institute of Arts). 패마침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다양한 불상과 함께 한국의 도자기들도 볼 수 있었다.

장거리 여행을 다녀와서 그런지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한 친구는 80대 중반이나 된 사람이 사서 고생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세에는 더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서효원·LA

헤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3.9%	42.3%	2.3%	0.0%
매우물음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sciatca 좌골신경통

영치
포리백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뻣음

발목 뻣음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펴기 힘들다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뺑아쇠

피지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헤민한의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필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불안한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 더 절실한 한·미·일 협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자신이 이끌던 자민당 내 기시다파(46명)의 해산을 발표했다. 자민당 내 파벌들의 비자금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자 정치 생명을 건 초강수를 둔 셈이다. 이어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98명)와 니카이파(38명)도 해산을 선언했다. 일본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제31차 한일비전포럼에선 '최근 일본 정국 동향과 한·일 관계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정국이 요동치고 있지만 대외 정책의 일관성은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며 "올해도 한·일 관계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치개혁 요구로 일본 정국 요동

▶이주경 부산대 교수 발제 요약

현재 일본 정국의 향배를 좌우하는 키워드는 '정치 개혁'이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장으로 사회 전반에서 정치 개혁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서 당 요직에서 아베파가 배제·교체됐고 이후 총재 직속의 정치쇄신본부가 설치됐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계를 만든 건 다름 아닌 자민당이다. 자민당은 그간 중의원 해산 결정과 관저 주도 정치 등 수상(首相)의 권한과 리더십을 활용해 유권자의 정권 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치를 해왔다. 기시다 내각은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대에 대한 '총결산' 작업을 지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시대 정치를 사실상 계승하며 '아베 브랜드화'에 집중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또한 약체화해 대안 세력을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신뢰를 회복할 수준의 정치 쇄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의 교체가 이뤄진다면 오는 3월 예산안 확정과 4월 미국 방문 이후가 될 수 있다. 차기 리더의 조건은 '탈(脫) 아베', '탈 파벌', '탈 기성 정치'의 청렴하고 참신한 이미지다. 이에 더해 정책 혁신 능력과 지방 장악력도 중요하다. 중의원 해산은 기시다 총리 재임 중에 이뤄지거나 혹은 새로운 총리 체제 하에서 6~9월 사이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일본 내 중론이다.

일본 정국은 요동치지만 기존 외교·안보 노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일본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파벌은 현재 정책 집단이라기보다 인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집권 자민당 정치쇄신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파벌 '기시다파(고치카이파)'를 해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집단에 가깝다. 자민당 주도의 정치 구조가 형성된 '1955년 체제' 당시 자민당 파벌 내에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외교 정책에 대한 선호가 혼재했다면 지금은 파벌 모두가 보수·현실주의의 성향으로 변화했다.

기시다 총리, 아베의 우산 못 벗어나

▶이원덕 국민대 교수=1955년 체제에서 파벌은 상당히 이념적 색채를 띠었고, 정책 노선이 파벌별로 차별화했다. 그러나 최근엔 파벌 간 외교·안보 노선에 별 차이가 없고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파벌이 해체돼도 기본 성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민당 내 스캔들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일본 내에선 차기 총리 후보로 가미가와 요코(上川陽子) 외상을 꼽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비자금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 기시다 내각의 대응이 미흡하다. 오히려 아베 전 총리 때는 당내 여론이 아래로부터 탄탄하고 촘촘하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고 빈틈이 많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우산 아래를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플러스 알파(a)'를 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대만 관련 사안 등에 있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활용하려는 의사는 내비치고 있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관저 정치의 시스템 속에서도 리더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또 발제자가 '1955년 체제' 당시와 현재의 차

민당 파벌의 정책 선호 양상을 비교했는데 변화 과정에서 결정적 계기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정적 계기로 변화가 이뤄졌다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고, 반면 점진적 과정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미·일 협력 지속할 수 있어야

▶위성락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총장=정부는 지금처럼 정치적인 사안인 한·일 과거사 문제를 그간 행정적으로 대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 한·미·일 안보 협력도 정치적으로 매우 무거운 이슈다.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막막한 상황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한·미·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일본으로 하여금 설사 자국 내 여론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성 담보에 힘을 보태는 게 나을지 냉정히 득실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2일 열린 한일비전포럼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박홍규 고려대 교수,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주경 부산대 교수, 위성락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총장, 유영환 전 외교부 장관,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장. [김종호 기자]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태평양전쟁 전변 도조 히데키와 전후 일본 재건의 주역 요시다 시게루의 공통점은 수상인데 외상을 겸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이렇게 외교를 중시하는 DNA가 있는 나라다. 일본이 외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전환적 발상, 리더십의 용기와 결단력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졌지만 일본의 호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본의 리더십에도 역동성, 유연성, 현실성이 더해져야 한다. 일본이 보다 더 움직여야 한다.

왜 협력해야 하는지 더 설득해야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장=파벌은 1955년 체제가 시작된 후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정치 개혁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 일본 정치의 DNA에 새겨진 고질적 요인이다. 일본이 지금은 파벌 해체를 약속하지만, 아

마 지금의 역풍이 지나가면 과거 정치 개혁이 그랬듯 파벌 구도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자존심과 현실적 관계 개선 필요성 사이에 국론이 양분돼 있다. 지도자가 직접 왜 한국이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는지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영환 전 외교부 장관=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며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칠 줄 누가 예상했겠나. 또 중동에서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일은 힘을 합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방면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는 기시다 총리가 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파벌은 일본의 태생적인 요소로 사라지기 힘들다.

정치 불안에도 일본 국론 분열 없어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자민당의 현 정국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평균적인 여론은 비교적 담담한 편이다. 국론 분열은 없다. 역사는 '변화'(change)와 '연속성'(continuity)이라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연속성의 문화와 정치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 중 왕조가 한반도 바깥에 없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당분간 자민당 중심의 일본 보수 정치의 기조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일본 정치에 있어 자민당의 위상이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총리가) 바뀌더라도 자민당의 기본 노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지난해 우리 외교의 가장 큰 성과인 한·일 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업그레이드가 3국의 국내 정치 변수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성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잘 관리하는 게 올해 과제다. 한국은 일본의 '물결의 절반 채우기' 노력이 부족한 데 대한 불만이 있고, 일본은 한국이 과연 강제동원 문제를 제3차 변제안에 의해서 깨끗이 해결할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정리=박현주 기자

◆한일비전포럼=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11월 출범했다. 산하의 한일비전포럼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3 Return
TA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펠리 지역]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시 설

용산·여당, 파국 막았지만 남은 불씨 해소할 대승적 해결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이틀 만에 수습 국면을 맞았다. 두 사람은 어제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을 같이 방문했고 귀경길 열차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께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총돌이 이어지면 공멸뿐이란 우려를 공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급한 불은 끄지만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하는 건 두 사람에게 여전히 남은 과제다.

갈등의 핵심은 명품백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선 김 여사가 사과하면 “야당이 들개처럼 물어뜯을 것”이란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거론하며 김

공천은 당에 맡겨두고, 용산은 민생 전념 바람직 명품백 논란 역시 국민 납득할 수준 조치 필요해

여사의 사과를 촉구한 김경울 비대위원의 거취를 놓고도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측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집권당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면 과도한 당무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명품백 논란은 북한에 수차례 드나든 반정부 성향의 목사가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몰래카메라로 합성 취재를 한 데서 촉발됐으니 ‘불법 정치공작’이란 대통령실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명품백이 정상 외교나 공적 행사의 공식적 선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를 넘고 “표명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20~30% 선인 여론조사가 잇따른 것도 이런 정서와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사과나 유감 표명, 또는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자초지종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설치 등 리스크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 대통령 배우자도 공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힘든 상황이다.

김경울 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는 거칠고 분명 적절치 않았다. 그러나 맥락을 보면 명품백 논란을 덮고 가선 총선은 필패라는 위기감에서 나온 발언으로 들리는 측면도 있다. 마침 김 위원도 거친 언행을 사과했으니 그의 거취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실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천은 대통령실도 밝혔듯이 당의 고유 권한 아닌가.

총선이 임박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속히 머리를 맞대 ‘김 여사 리스크’와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할 대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안 그러면 총돌이 언제든 재연돼, 여당의 총선 패배와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우려가 있다.

정권 교체 후 이뤘던 보수 지지층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든 난국을 헤쳐나갈 해법을 찾아내야 바란다.

고질적 재판 지연에 줄줄이 풀려나는 형사 피고인들

대북 송금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씨 뿐 아니라 김도 전 쌍방울 재경본부장,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보석으로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이며,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연장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송환돼 2월 3일 구속기소됐다. 1차 구속 만료 시한을 앞두고 지난해 7월 검찰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하지만 다시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법원이 풀어준 것이다.

모두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이 늘어선 데 따른 결과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해임과 재선임,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내며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여기에 현 재판부가 다음 달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여 재판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부분의 피고인이 석방됐다. 대장동과 관련해 50억 클럽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마저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형사 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만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긴 하다. 하지만 기일 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보석을 노려 재판을 지연시키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도주하거나 말을 맞추는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한다.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관할 이전,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하며 재판을 끌다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동안 정식 재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

대법원도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고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판장 임기를 1년 늘리고, 시니어 법관제를 도입하며, AI 활용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엇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시민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 재판을 끌어보려는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집중심리제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 재판이 길어질 경우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줄여 주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관들도 민감한 재판의 결론을 미루다 인사를 때 떠나버리거나 야에 사표를 내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이나 끌다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가 쌓이고 재판이 더 늘어지면 법원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만다.

‘부자 감세’ 프레임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본다. 대한민국은 재난지원금에 쫓겨 있었다. 코로나가 극성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 16일 전이었다. 6월 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따라붙었다. 바로 다음 날, 이회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전 국민 지급’ 제안을 낚아채 정부안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포퓰리즘의 끝판 경쟁이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투표 이틀 전 통합당 오세훈 후보와 맞붙은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고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총선 19일 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 사는 데 쓰였다는 보도를 봤다”며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고 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등에 쏟아지는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할지 모른다. ‘퍼주기’ 정도는 그때와 비할 바가 아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추경치는 연간 약 1조원. 4년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들어간 재정은 총 14조3000억원(지자체 부담 2조1000억원 포함)이었다. 포퓰리즘 비판에 관한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격 미달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증가한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다.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밀어붙이는 중이다.

그러나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 4년 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사정이 작용했다. 조유의 팬데믹이 돈을 막 풀다는 사회적 죄의식을 가졌다. 그사이 재정이 많이 망가졌다. 올해 재정적자만 GDP의 3.9%

로 전망된다.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선거용 대표 예산을 배격하겠다”며 예산을 긴축 편성하지 않았던가. 건전재정 사수 의지를 불태웠던 대통령이 해가 바뀌자마자 감세안을 쏟아내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대통령의 말도, 정책도 무거워야 한다.

감세의 명분은 경제의 선순환이다. 경기와 시장이 살아나기만 하면 세수도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실에선 좀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금투세 폐지는 세금을 면제해 투자를 유치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조세정의나 공평과세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시장이 두터워져 주가가 오르면 국민 재산 증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2000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큰손’을 비롯한 투자자가 대거 유입되고, 주가가

증시 감세, 건전재정과 엇박자 정부 “투자자 감세” 외치지만 조세정의 배치, ‘낙수효과’ 논란

올라야 맞는 말이 된다. 결국 ‘낙수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가가 정체·하락하면 그냥 부자 감세로 그칠 뿐이다. 정부가 지난 연말 시행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도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 이자 환급,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단말기유동법(단통법) 폐지 등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60% 안팎, 갤럽 조사)의 첫째 이유로 계속 ‘경제/민생/물가’가 지목된다. 현 정권의 ‘친부자’ 이미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금투세 폐지 등 일련의 증시 감세는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 같은 감세가 어떻게 민생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설명은 부족했다. 추진 방법도 미숙했다. 한국 정치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은 강력하다. 국민 공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정치적 반발을 초래한다. 현 정권도 자꾸만 그 프레임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수석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불안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속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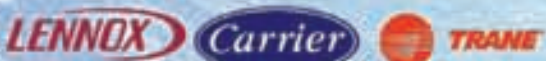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AN. 25th - FEB. 1st, 2024

SUHYUP
Swimming Crab
수협 대한민국 명품 꽃게
HIGH QUALITY/BIG SIZE
3-5 CNT (2.2 LB/BOX)

\$14.99

FROM KOREA



* 해당 제품은 무게에 따라서 갯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Size and quantity of product vary based on weight.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anuary 25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모기지 상환금 소득 25% 이하면 구입할 만”

주택 구입 vs 임대 뭐가 좋을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집을 구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집값이나 모기지 금리가 조금 더 하락하길 기다리며 임대하는 게 좋을지. 이 질문은 부동산 시장 현황과 상관없이 내 집 장만을 계획하는 이들이라면 늘 고민하는 질문이다. 더욱이 새해를 맞아 내 집 장만에 첫 발자국을 떼려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답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구입과 임대에 장단점은 각기 다르고 현 시장 상황도 따져봐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근 주택 구매와 임대 있어 장 단점을 알아봤다.

부채 있고 이직 고려 시엔 임대 유리 5년이상 장기 거주는 구입이 합리적

▶구매 및 임대 시 비용
요 몇 년 새 높은 집값과 모기지 금리
로 인해 주택 구입 진입장벽이 높아져
내집 장만을 꿈꾸는 이들에게 좌절감
을 안겨주고 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
은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유리
하다고 진단한다.
부동산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
비용에 비해 구매 비용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
에서는 월간 주택 모기지 상환금과 렌
트비 차이가 10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회사인 CBRE
통계에 의하면 지난 연말, 신규 주택
구입과 신규 임대 시 소요되는 월간 비용
차이를 나타내는 구매 프리미엄(buy
premium)이 사상 최고치인 52%를 기
록했다. 2021년 4분기 구매 프리미엄은
-1%를 기록했는데 이는 임대료가 주택
소유 비용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상
황이 이렇다 보니 내 집 장만을 계획하

는 이들은 부동산 모기지 금리와 집값
이 하락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
지만은 않다. CBRE 매튜 반스 책임연
구원은 “많은 이들이 집값 하락을 기대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 공급은 제한돼 있
고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분
석했다.
▶재정적 고려사항
주택 구매는 임대보다 초기 들어가
는 비용이 훨씬 높다. 특히 현재 잠재
구매자들에게 가장 높은 장벽은 모기
지 금리와 비싼 집값일 것. 그러나 현재
각종 경제지표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안정적
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 수차
레 금리 인하 단행에 대한 신호를 보내
고 있어 잠재 구매자들에게는 올해 주
택 구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주
택 구입 시 월 모기지 상환금과 재산세
외에도 각종 비용을 체크해봐야 한다.



현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살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재정 상황 및 근무 형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unsplash.com)

관리할 잔디 유무, 업체를 고용해 수영
장을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눈이나 낙
엽 제거 시 비용이 드는지, 지붕 교체,
폭풍 피해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정적 계획
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적잖은 비용이 소
요되지만 주택 구입에 최대 장점은 역
시 자산 형성, 즉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
은 투자가 돼 에쿼티가 늘어나면서 순
자산도 증가하게 된다.
주택 임대의 경우, 초기 지출 및 절차
가 구입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것. 비
공적인 측면에서는 신청비, 첫 달 임대료,
보증금 정도가 들어간다.
또 가전제품 고장 수리, 누수 수리,
쓰레기 수거 등 유지비 역시 렌트비에
포함된다. 또 이사가 쉽다는 것도 장점
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수
도 있다. 또 고장이나 누수, 배관 문제
등 관리 역시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에
게 의존해야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때
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근무 형태 고려
주택 임대와 구매에 있어 재정적 상
황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라
이프스타일. 사무실로 출퇴근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직할 계획이 없다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부
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5~7년 이상 같은
곳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집을 구입하
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
러나 만약 앞으로도 장기간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라면 다양한 지역에서 임대
로 거주해 보는 것도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임대할까 렌트할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재 구
매자의 재정 상태에 달려있다. 즉 원하는
지역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집
을 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재정 상태는 단지 집값만 포함되는 것
은 아니다.
이주현 객원기자
▶▶ 2면 '주택'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시니어 세입자 56% 렌트비로 소득 30% 쓴다

시니어 주거비 현황 및 집값 저렴한 도시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하버드대가 발표한 '미국 시니어 주거 현황 보고서(Housing America's Older Adults 2023)'에 따르면 렌트비와 모기지 상환 등 주거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시니어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보고서는 시니어 인구가 2022년 5800만 명으로, 2012년 4300만 명 대비 10년 새 3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2040년에는 80세 이상 가구 수가 1700만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시니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 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은퇴 후 소셜연금 등 은퇴 전보다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니어들에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 현황과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들을 알아봤다.

홈오너 26%는 소득 30% 모기지 상환
65~79세 홈오너 40% 대출금 갚는 중

▶ 소득 대비 주거비 현황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이 몇 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지난 몇 년 간 금리 상승, 렌트비 상승 등으로 주거비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 통계에 의하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시니어는 2016년 970만 명이었던데 비해 2021년엔 11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시니어 세입자들 중 56%, 약 400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홈오너의 경우 26%가 소득의 30%를 대출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었다. 또 지난해 65~79세 홈오너 40%가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 중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8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시니어들이 최근 상승하는 주거비에 젊은층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주거비와 더불어 홈케어 비용도 동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7개 대도시 거주 75세 이상 시니어 5명 중 1명만이 주거비와 홈케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됐다. 이는 75세 이상 시니어 80%는 주거비와 홈케어 비용을 동시 충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80세 이상 시니어 중 절반 이상이 인지력, 청력, 시력, 거동 등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시니어들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홈케어 비용에 더해 주거비까지 상승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셜연금이 의지해 생활해야 하는 시니어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니어 아파트와 같은 저렴한 공동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노인문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주거비싼 도시

이처럼 주거비가 큰 폭 상승하면서 소득이 제한된 시니어들은 주거비가 저렴한 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고뱅킹레이트(GoBankingRates)가 월 모기지 상환금이 1383달러를 넘지 않는, 시니어들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 리스트를 발표했다. <표참조> 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로 인해 은퇴 후 제한된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

[unsplash.com 캡처]

주거비 저렴한 도시 톱10

순위	주/도시명	일반 주택가격 (달러) (typical home value)	월 상환금 (달러)
1위	미시간 디트로이트	6만3661	419
2위	앨라배마 버밍햄	9만9433	561
3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10만1135	668
4위	오하이오 데이턴	11만152	727
5위	오하이오 톨레도	11만1305	735
6위	오하이오 아크론	11만4867	758
7위	앨라배마 몽고메리	13만8200	780
8위	테네시 멤피스	14만8427	875
9위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16만7807	1025
10위	앨라배마 모빌	18만5978	1049

*월 상환금은 20% 다운, APR 6.96% 기준

자료: 고뱅킹레이트

모기지 금액은 2021년 연방노동통계국이 집계한 전국 65세 이상의 평균 연소득인 5만5335달러의 30%를 넘지 않는 금액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곳은 미시간 디트로이트로 나타났다. 질로(Zillow)에 따르면 디트로이트의 일반적인 주택가격(The typical home value)은 6만3661달러로 20% 다운페이먼트로 1만2732달러를 지불하고 6.96% 금리로 30년 상환

시 월 상환금은 419달러다.

디트로이트의 재산세율은 1.54%로 다른 도시보다 좀 높은 편이지만 저렴한 모기지 상환금이 이를 보완해 준다. 2위는 앨라배마 버밍햄(Birmingham)이 차지했다. 버밍햄은 일반적인 집값이 9만9433달러로 이번 조사에서 디트로이트와 함께 집값이 유일하게 10만 달러 미만으로 집계된 도시다. 20% 다운시 대출 총액은 7만9546달러, 월 모기지 상환금은 561

달러로 같은 주내 모빌(Mobile, 1049달러), 몽고메리(78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또 재산세도 0.41%로 저렴한 편. 3위인 클리블랜드는 집값 10만1135달러, 월 모기지 상환액 668달러로 저렴한 집값이 장점이다. 그러나 연간 평균 강설량이 63.8인치로 같은 오하이오 소재 데이턴(Dayton)의 37.4인치와 비교해도 많은 양이어서 집 앞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이 힘들다면 이사를 재고하는 것이 좋다. 4~6위는 오하이오 데이턴, 톨레도(Toledo), 아크론(Akron)이 차지했다. 이들 집값은 11만달러 중반대로 월 모기지 상환금은 700달러 초반대로 나타났다. 7위는 앨라배마 몽고메리, 8위는 테네시 멤피스(Memphis)가 차지했다. 인구수 62만 여명의 멤피스는 대도시지만 은퇴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 옵션이 있어 시니어들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집값은 14만8427달러이며 월 모기지 상환금은 875달러. 재산세율은 0.71%인데 이 도시의 개인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

이주현 객원기자

▶ 1번 '주택'에서 이어집니다

주택보험,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통근 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냉

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만약 현재 빚이 없고, 다운페이먼트를 위한 충분한 현금이 있고, 모기지 상환액이 수입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집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빚

을 갖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 또는 이직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 유연성이 큰 임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 제

시카 라우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거비 외에도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단기 거주할 것 같으면 현 시장에서는 임대해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

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는 “다만 여전히 집값이 높기 때문에 주택 보유는 자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껏 그랬던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채들리 타운홈

\$560,000

방3, 화3.5, 차고1, End Unit
2009년산
사우스라이딩

버크 타운홈

\$549,000

방4, 화3.5, 2 Assigned
뉴키친, 뉴윈도우
굿 로케이션

센터빌 싱글홈

\$690,000

방3, 화3.5, 차고2
새지붕, 새HVAC, New Flooring
뒷마당 넓은 집, Fully Fenced

COMING SOON

헤이마켓 싱글홈
방4, 화4.5
3600sf
업그레이드 중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업그레이드
굿 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재혼때 상속포기, 그 각서는 '낙서'

(법적 권리 제로)

머니랩-상속·증여편

"상속인 사망 뒤 쓴 각서만 효력" 남편 유산 못받을 뻔한 아내 웃어 부모 모신다면 '부모대출'로 절세 상속·증여 세무 정보 알차게 답아

부동산 가격 등이 오르면서 '자산가들의 이슈'로 여겨지던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의 '머니랩'에는 일반 독자들도 알아두면 좋을 상속·증여, 세무에 대한 정보가 알차게 담겨 있다.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병원비 등 일체를 부담하는 회사원 A씨(47)의 고민을 살펴보자. A씨의 홀어머니가 가진 재산은 서울의 아파트 1채 정도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10억원이 넘어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일괄공제(5억원)를 제외한 5억원에 대해 20% 상속세율로 8536만원의 상속

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A씨 같은 직장인이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자녀(상속인)보다 부모(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의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부모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나 생활비는 본인의 통장(재산)을 활용하고, 현금자산이 부족할 때 대출을 받는 게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A씨의 경우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빌려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내야 할 상속세는 271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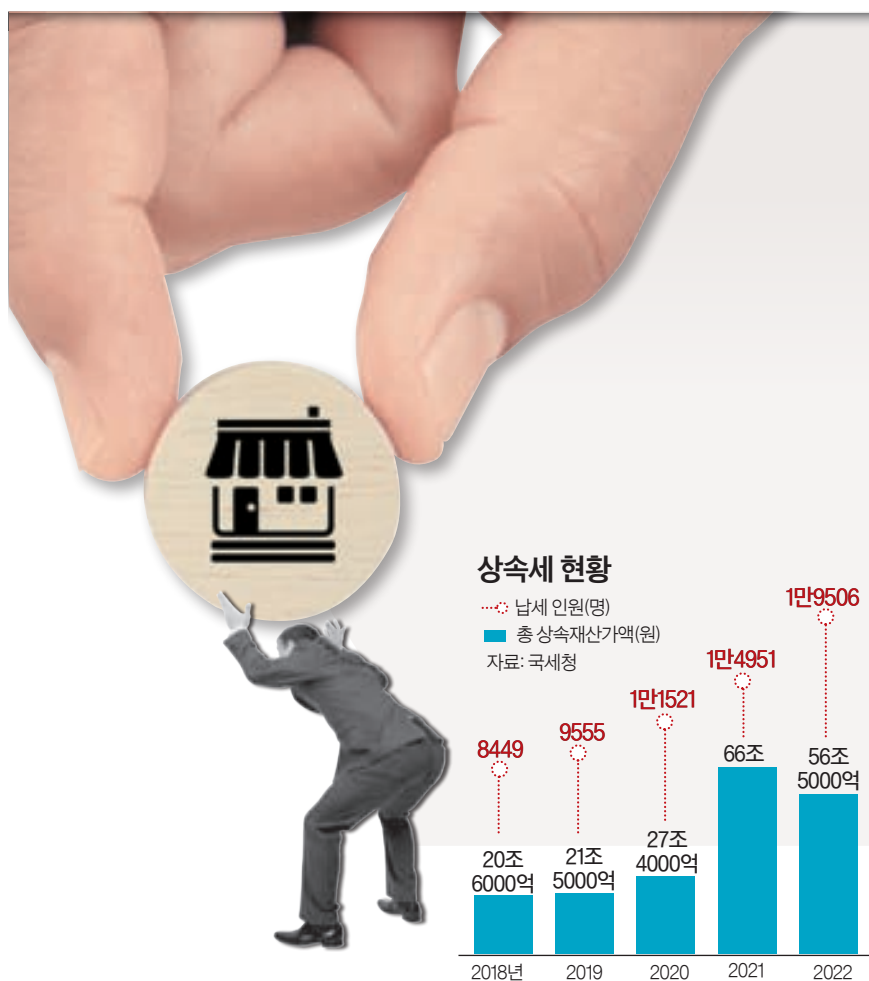
사회 전반의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35년 전 재혼한 B씨(73·여)의 고민도 들어본다. B씨는 재혼 당시 'B에게 법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가 낳은 자식 2명은 이 각서를 근거로 아버지(B씨의 남편)가

남긴 50억원 상당의 유산을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실제 법적인 해석은 어떨까. B씨가 직접 각서를 쓴 만큼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법률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사례 속 B씨는 1순위 상속인으로 법정 상속액 21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랩에서는 이 밖에 식당을 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이미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더 급락했을 때 이를 반환받아 세금을 아끼는 법 등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를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증여뿐 아니라 다시 뜨거워지는 반도체 분야 투자법부터 큰손들의 돈을 굴러주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짚은 유망한 투자처 등 믿을 만한 투자에 대한 정보도 만날 수 있다.

안효성 기자



사이라 말릭의 마켓 나우

한동안 계속될 고금리 상황에 대비하자

금리의 롤러코스터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과 싸워 온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놀이공원 안전요원을 연상케 한다. 안전벨트를 조여주고 레버를 당겨 경계가 새로운 차원의 통화정책 궤도를 달리도록 했다. 그 결과 금리 변동 폭이 커졌고 투자자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미국 국제 10년물 수익률의 가파른 상승과 급격한 하락은 롤러코스터를 떠올리게 했다. 10년물 수익률은 2022년 초 2% 미만에서 2022년 말 3.9%로 상승했다. 지난해 10월에는 5%에 육박하는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연말에는 다시 3.9%로 떨어졌다. 대다수 투자자는 험기증 나는 고점에서 내려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지만 금리 롤러코스터는 계속 달리는 중이다.

(FOMC) 회의에서 오간 얘기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해 금리 고점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12월 FOMC 회의록에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여전히 데이터에 의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연준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긴축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은 큰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금융시장 최대의 적으로 받아들여 지곤 한다. 2023년 마지막 달 주식·채권 시장에 광범위한 랠리가 등장했다. 이는 11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시장은 금리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는 고금리 속에서도 지속적인 회복력을 보여왔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 기조가 곧 끝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려 연준은 중기적으로 1970년대에 벌어졌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악몽을 피하려 할 것이다. 즉 실질 금리는 현 수준 유지 가능성이 높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민하는 투자자는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좋다.

고금리 상태가 더 오래 지속하면 '이제 그만 롤러코스터에서 내리고 싶어요'라고 외치고 싶은 투자자들이 생겨날 거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본다. 듀레이션이 보다 긴 지방채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다고 판단한다. 지방채는 펀더멘탈이 탄탄한 데다 수급 여건도 양호하다. 2024년 지방채 발행량은 2023년 집계했던 수준과 비슷할 거다. 또, 연초에는 신규 발행 물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 전에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얻으려고 지방채 비중을 늘리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채 수요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누빈 최고투자책임자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베네치아의 영광과 기억, 산 마르코 광장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 지방 사람들이 5세기경 서로마를 멸망시킨 훈족을 피해 건설한 해상도시다. 바다에 나무막을 박아 돌과 흙을 메꿔 만든 인공 섬들 위에 건물들을 조밀하게 세웠다. 물길을 남겨 만든 운하들은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되었고 곳곳에 크고 작은 광장을 두어 해상도시의 답답함을 해소했다. 베네치아를 관통하는 대운하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도시의 중심인 산 마르코 대성당과 광장이 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 지방 사람들이 5세기경 서로마를 멸망시킨 훈족을 피해 건설한 해상도시다. 바다에 나무막을 박아 돌과 흙을 메꿔 만든 인공 섬들 위에 건물들을 조밀하게 세웠다. 물길을 남겨 만든 운하들은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되었고 곳곳에 크고 작은 광장을 두어 해상도시의 답답함을 해소했다. 베네치아를 관통하는 대운하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도시의 중심인 산 마르코 대성당과 광장이 있다.

9세기 베네치아 무역상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도 마가의 시신을 훔쳐와 봉안소인 산 마르코 성당을 축조했다. 5개의 돔을 올리고 화려한 모자이크 그림들로 내외부를 장식한 현존 대성당은 비잔틴 양식의 유럽판 대표 건축물이다. 웅장한 공간에 황금빛 모자이크로 장식된 내부의 '지상에 재현된 천국'으로 여겨졌다.

3면에 아케이드를 세워 광장의 독립적 존재감을 확보한 대광장은 오피스와 쇼핑과 카페들이 밀집한 도시의 일상적 중심이다. 대성당에서 멀리 갈수록 폭이 좁아 드는 사다리꼴 광장인데 투시도 효과로 인해 실제보다 더 깊고 더 넓게 보인다. 도제(Doxe·도시국가의 통치자)의 궁궐과 도서관 등 공공 시설로 감싸진 소광장의 한 면은 바다와 항구로 열려 있어 해양도시 베네치아의 관문 역할을 한다.

대성당 전면과 측면으로 대광장(피아자)과 소광장(피아제타)이 있고, 두 개의 광장은 직각으로 만난다. 교차점에는 높은 종탑을 세워 두 광장을 절묘하게 구획하는 동시에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한다.

대광장은 도시를 향해, 소광장은 바다를 향해, 그리고 산 마르코 성당은 하늘나라를 향하며 강력했던 해양도시 공화국 베네치아의 변영을 기억하게 한다. 이탈리아 칼비노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마르코 폴로는 몽골의 황제 쿠빌라이 칸에게 건축과 도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건축물들은 도시를 존재시키기 위해 반복하는 기억의 기호들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출신이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Nationwide is on your side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ies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D (08/16) 7400524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테크 건너편 위치)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695; MD 06-20828; NC L-161472; VA MC-5777; DE 030648; TX: PA 101075; WV M-1108695; MB-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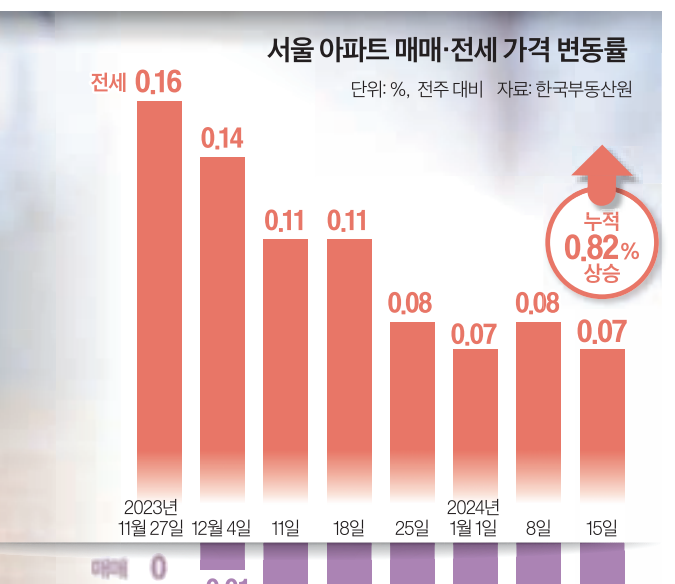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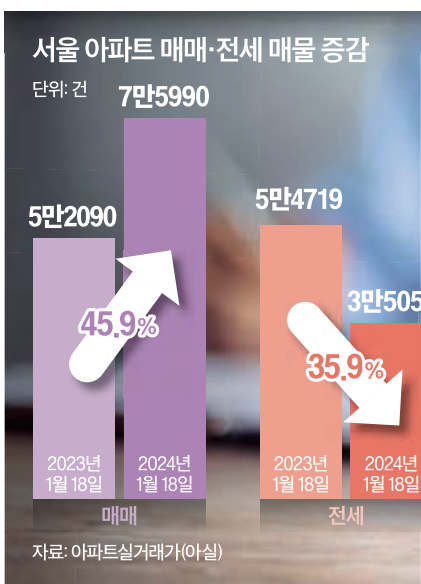
집값은 내리는데, 서울 전셋값 35주째 올랐다

아파트 전세매물 1년새 36% 감소
올해 입주물량도 3분의 1로 줄어
잠실엘스 84㎡ 작년보다 4억 상승
계속 오르면 매매가격도 뚝 수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주간 조사 기준
으로 35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매매값
은 8주 연속 하락세다. 집값이 본격적
으로 상승한 2017년 이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매매와 전세 시
장에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15일 기준)은 일주일 전
보다 0.07% 올랐다. 지난해 5월 22일
조사(0.01%)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부동산원은 “주거 편의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 중”이
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절적 영향으로
상승 폭은 다소 주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번이나 올렸던 2022년
부터 급락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상
승세로 돌아섰다. 실제 서울 주요 아
파트 단지에선 전셋값이 수억원씩 반
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5678가구) 전용면적 84㎡는 지난 8
일 12억5000만원(8층)에 전세 계약을
했다. 지난해 2월 같은 동, 비슷한 층
(7층)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여 만에 4억원 넘게



반등했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역전세
를 걱정하던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경
신하면서 2년 전보다 오히려 높은 가
격에 새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매매값은 주춤하다. 부
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값
(15일 기준)은 일주일 전보다 0.04% 하
락했다. 지난해 11월 27일(0.00%) 이후
8주 연속 하락이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일반적으로 매
매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한다. 실제
2017년 이후 매매와 전세 시장이 이런
동조 흐름을 보였다.

반대로 침체기에는 매매값은 떨어
지는데,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
나곤 한다. 전세의 경우 2년마다 새로
운 계약을 맺는다. 이때 임대인은 집을

새로 살지, 기존처럼 전세로 살지를 결
정해야 한다. 이때 금리 등 외부 요인
으로 한쪽(매매)의 수요가 크게 줄면,
다른 한쪽(임대)으로 몰리기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
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
은 1년 전 5만4719건에서 35.9% 줄어
든 3만5057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
도 매물은 같은 기간 5만2090건에서
7만5990건으로 45.9% 늘었다. 상대적
으로 전세 수요가 많은데, 매물이 부족
하니 가격도 오르는 것이다.

향후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
할 것이라 예측도 전셋값 상승을 부
추진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
주 물량은 1만1107가구로 지난해(3만

2879가구)의 33.8% 수준으로 감소
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
세 시장은 입주 물량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
셋값이 오르는 것은 빌라 등 비아파트
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세 사기의 영향
도 있다. 비아파트 임대 수요가 상대적
으로 안전한 월세나 아파트로 전환된
결과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반적인 임
대비용이 증가한 것도 전셋값 상승 요
인으로 꼽힌다.

장기적으로 전셋값 상승은 주춤
하는 매매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
전세에 머물던 대기 수요가 다시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

세 시장이 금리에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
는 심리가 전세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며 “향후 매매값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봐
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
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의 예외 범위에 있는
전세대출(유주택자에 한함)에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와 가계대
출 증가 우려에 따른 결정이지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도 무관하지 않다는
풀이가 나온다. 김원기자

빌라 담보대출, 인뱅으로 갈아타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스템 미비로 생긴 '구멍' 없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 30% 세액공제
신성장 세액공제에 방산도 포함

기존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주
택담보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못
받는 '구멍'이 메워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했다.

현재 무주택·1주택 근로소득자는 장

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빌라 주담
대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갈아타면,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상 소득공제를
받을 길이 없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이런 차이를 없앴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
제도 대상 주택을 기준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주택연금은 소
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 등을 위
한 금액을 대출받는 구조인데, 발생하
는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한도
200만원)해주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지난해 확대된 것에 맞춰 제
도를 바꿨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
소비세 면세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
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
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한
도로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자녀가 취
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된다.

'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시
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내년 12월 말까

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
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
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
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이와 함께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
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국내지출 비
율 80%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하면 최
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
다. 이는 이른바 K-콘텐츠의 '직접 제
작'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고

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제작하
는 영상 콘텐츠의 80~90% 정도는 추
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다른 R&D(연구개발)보다 높은 세
액공제율(대·중견기업 20~30%)을 적
용받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
산업 분야를 추가했다. 미래전(戰) 승
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 전력이라는 평
가를 받는 추진체계(가스터빈엔진 등)
와 군사위성,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이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지정됐다. 정
부는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방위산업
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있다.

김민중기자

중양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양일보가 함께합니다.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1월 **HOT** 리스팅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법원부근
타운홈
방3 + 화2, 차고 2
2767 sqft, 1996년
\$825,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옥슨 고교부근
타운홈
방3 + 화3.5, 차고 2
2188 sqft, 1999년
\$90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피켓로드부근
싱글홈
방5 + 화4.5
3970 sqft, 2004년
\$1,45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5
\$53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2
1214sqft
1997년
콘도비
\$403

주택 매매 / SALE



애난데일
콘도
방1 + 화1
\$225,000

주택 매매 / SALE



애쉬번
타운홈
방3 + 화3.5
차고1
1995년
\$500,000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2024년 새해가 들어선지도 벌써 한달 가까이 되어간다.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던 주택시장은 새해 들어서 이제 곧 다시 이자율이 내려갈거라는 많은 이들의 기대감 때문일까? 또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은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가격 상승을 이끈다고 전망하기 때문일까?

아직도 높은 이자율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서 부쩍 투자용 주택 용자에 관한 문의가 늘어난 듯 하다. 비록 아직은 높은 이자율의 부담으로 인해 당장 투자용 주택에 대한 투자수익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전망에 따른 빠른 행보를 취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스텝스 때문이라.

사실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다보니 아무래도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할 수 있는, 또 비교적 만만하다고(?) 할 수 있는 콘도에 관심이 커지는 듯 하다. 그렇다고 가격

이 만만하다고 해서 용자가 쉽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니 주의 해야한다. 특히 콘도구입 용자에 있어서는 용자신 청인의 자격유무를 판단하는 심사뿐 아니라 해당 콘도 단지에 대한 심사 또한 추가로 한다는 점 꼭 염두에 뒀어야 한다. 즉, 용자심사에 있어서 해당콘도 단지가 용자를 해줘도 큰 리스크는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하나 더 거친다고 보면 되니 그만큼 용자를 얻기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두가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해당 콘도 단지 전체에서 유닛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용 유닛의 숫자가 렌트로 이용되는 렌트용 유닛숫자보다 더 많은지를 확인하고, 또 전체콘도 유닛 주인들의 콘도피 연체비율을 확인한다.

만일 해당 콘도 단지가 은행의 요구를 못 미치는 경우 아무리 훌륭한 조건

콘도구매시 주의점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을 갖춘 바이어라고해도 본인의 자격요건과는 상관없이 해당콘도의 리스크 때문에 용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콘도구입에 앞서 반드시 해당 콘도의 정확한 상태 확인을 거쳐서 구매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해당 콘도의 현재의 데네티비율이 50% 넘지 않는지 꼭 미리 확인후에 진행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물론 Primary Residence 즉, 본인 거주용으로 콘도를 구입할 경우는 예외로 데네티비율과 상관없이 콘도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승인을 waive 받기도 하지만, 무조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예외조항 즉 exception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용으로 콘도를 구입한다면 해당콘도의 자격요건은 피해갈수 없는 단계라는 점 유의하고 해당 콘도 단지의 investment ratio가 50% 이상이 아닌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또 FHA나 VA 같은 정부용자로 콘도를 구입할 시에는, FHA Approved Condo 와 VA Approved Condo 에만 용자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콘도가 FHA 또는 VA에서 승인된 콘도인지 먼저 확인 한후에 용자진행을 하는 게 좋다.

만일 여러분이 용자를 얻어서 콘도

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스스로의 자격요건만을 맹신하고 선불리 진행하지 말고, 본인의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해당콘도의 자격요건또한 꼼꼼히 따져본뒤에 앞으로 나아가는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물론 계약 단계이전에 미리 해당콘도의 상태를 파악하고 따져보는게 경쟁이 치열한 작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보면 계약을 이끌어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한두푼도 아니고 대부분의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재산이랄수 있는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것은 아무리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부동산을 구입할때 힘든 과정을 겪어야하는 것 만큼 (만일 앞으로 규제가 제한이 바뀌지 않고 지금그대로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중에 팔때 내 콘도를 살 사람또한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구입해야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길 바란다.

>문의: 703-868-7147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유형 따라 리스 계약 기간·조건 다양 리스계약 조항 부동산 자산 가치에 큰 영향

상업용 부동산에서 건물주와 테넌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 계약이다.

아파트 경우 일 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 빌딩 혹은 인더스트리얼 빌딩 경우는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테일 등 쇼펜센터는 5~10년 이상의 장기 리스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호텔은 숙박객에게 하루 단위로 리스 계약을 한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리스 계약의 기간과 조건이 달라지고, 각 부동산별로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매우 다양하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크고 작은 리스 계약의 조항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리스의 종류는 Owner's Leased-Fee Interest, Tenant's Leasehold Estate, 그리고 Subleas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Owner's Leased-Fee Interest 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의 개념이다.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계약된 기간 동안 건물의 일부나 전체를 사용할 권리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인 렌트비를 받는 리스 형태다.

리스계약기간이 끝나면 테넌트는 건물주에게 공간을 돌려주게 되는데, 계약된 기간 동안에는 테넌트는 사업을 위해 꾸며진 공간을 건물주의 허락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그 공간의 사업체를 담보로 용자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Tenant's Leasehold Estate은 조금 전에 설명한 Owner's Leased-Fee Interest가 가치를 가질 때 Tenant's Leasehold Estate 라고 부르게 된다. 즉, 현재 지불하고 있는 렌트비가 근처 비슷한 조건을 가진 공간의 렌트비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가 바로 이 리스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건물주가 Sublease를 허락하였을 경우 그 가치는 매매 가능한 가치가 된다. 공유 오피스, 공유 창고, 공유 주방 등이 이런 개념에서 발전된 상품들이다.

마지막으로 Sublease가 있는데 이는 현재 공간을 리스하고 있는 테넌트가 다른 테넌트(서브 테넌트)에게 리스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이럴 때는 건물주의 허락이 필요하고, 리스 계약서에 Sublease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리스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Sublease를 주었다 하더라도 테넌트는 서브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든 지 안내든 지와 상관없이 계속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지불하여야 하고 임대한 공간을 리스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와 약속한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나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브랜트 쿠퍼 CBRE 코리아 테스크

투자 플랫폼과 앱 발전으로 투자 다변화 자금 상업용 부동산·미술품 투자로 이동

최근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21세에서 42세 젊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설문 조사를 했다. 자신들의 자산을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했느냐는 질문에 주식에 25% 만큼 투자한다고 답했다. 투자 자산의 약 55%를 주식에 투자하는 43세 이상의 전통적인 부자들과 대비된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주식 시장의 약세로 주식 투자가 전보다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과 채권에 올인했던 경향에서 투자가 다변화되고 있다. 그만큼 투자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젊은 부자들의 자산 투자처는 부동산, 미술품, 고품질 와인 등 아주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은퇴를 앞둔 은퇴자들도 주식과 채권 이외에 어디에 목돈을 투자할까에 고민하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주식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는 부동산에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투자 다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투자 플랫폼과 앱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외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아이템이나 플랫폼을 쉽게 찾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가령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위험이나 자금 여력으로 인해 투자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투자자를 모집해 대행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플랫폼을 찾아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대규모 리테일 부동산을 구입 관리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한다면 꼭 렌드로드가 되지 않더라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많은 수익을 내는 홀푸드 마켓, 월마트, CVS 등 이름있는 리테일 회사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전문 부동산 회사에 투자한다면 큰 위험 없이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요즘 평균 수익률이 7~8%에 이른다고 한다.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을 고르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가령 유명 리테일이나 그로서리 마켓 포트폴리오나 인더스트리얼이나 물류센터 포트폴리오는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오피스 건물 전문으로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회사를 잘 선정해야 한다.

요즘 흥미 있고 주목을 받는 자산 투자처는 미술 작품이다. 미술 작품 관련 투자는 영화에서 자주 보듯이 수퍼 부자 같은 일부만이 투자하는 투자처였다. 그러나 미술 관련 투자 플랫폼이 많이 생겨 주니어 부자들이나 목돈이 있는 은퇴자들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되었다.

특히 젊은 밀레니엄 세대들이 미술 작품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포퓰러에 따르면 컨템포러리 미술, 거리 미술, 디지털 미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고이자로 CD에 투자한 자금들이 플랫폼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과 미술 작품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규 뉴스타부동산발레시아 명예 부회장

Realty Maryland advertisement for Jinny Choi and Stacy Yang, featuring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 간편하고 쉬운 POS
- ◆ 재고 관리 기능
-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마흔아홉 추성훈, 다시 링에 오른다

킥복서 홀즈켄과 28일 3R 경기 2년 만에 도쿄서 격투기 복귀전 “지금은 힘든 선수의 길 택할 때” 작년 별세한 부친 위해 싸울 각오

‘반백살 파이터’ 추성훈(49)이 2년여 만에 격투기 무대 복귀전을 치른다.

종합격투기 단체 원챔피언십은 22일 “추성훈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의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리는 원 165 대회에서 킥복서 니키 홀즈켄(41·네덜란드)과 맞대결한다. 계약 체중은 85kg이며 종합격투기와 입식타격을 결합한 특별 규칙(수퍼파이트)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추성훈과 홀즈켄은 3분 3라운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1라운드는 복싱, 2라운드는 무에타이(이상 입식타격기), 3라운드는 종합격투기를 적용한다.

추성훈이 격투기 무대에 복귀하는 건 674일 만이다. 이전 경기는 지난 2022년 3월 26일에 치른 원챔피언십 ONE X 대회 종합격투기 라이트급(77kg급) 아오키 신야(일본)전이다. 당시 47세였던 추성훈은 체력의 열세로 인해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39세의 아오키를 상대로 55연타 펀치 세례를 퍼부은 끝에 2라운드 TKO승을 거뒀다.

복귀전에서 맞대결하는 홀즈켄은



49세 파이터 추성훈이 2년 만에 격투기 무대에 돌아온다. 3라운드 룰이 모두 다른 독특한 경기방식으로 싸운다.

[사진 원챔피언십]

추성훈과 달리 입식타격기에 특화된 선수다. 지난 2019년 5월과 10월 원챔피언십 킥복싱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를 잇달아 치르면서 정상급 기량을 인정받았다. 추성훈이 입식타격기 위주로 치러지는 1·2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줄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추성훈은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유도 남자 81kg급 금메달리스트다.

2004년 은퇴와 함께 종합격투기 무대에 도전장을 냈다. 유도 선수 출신으로 드물게 수준급 타격 능력을 선보이며 승승장구했다. 2009년에는 ‘격투기의 메이저리그’ UFC에 진출해 전성기를 누렸다. 승패와 상관없이 매 경기 화끈한 난타전을 벌여 큰 인기를 얻었다. 원챔피언십에는 2018년 입성했다.

1975년생 추성훈은 올해로 만 49세다. 격투기 선수로는 증조할아버지 격

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식스팩이 선명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추사랑 아빠’로 활동하면서도 훈련과 체력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20대 선수와 달리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나이에 낫 놓고 쉬면 다시 컨디션과 체력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며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격투기 추성훈과 킥복싱 출신 니키 홀즈켄의 맞대결을 소개하는 포스터. [사진 원챔피언십]

전성기를 넘기고도 격투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성훈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 말한다. 그는 “아버지는 항상 ‘인생의 갈림길에선 평탄한 길 대신 험한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쉽고 편한 길을 걸으면 나태해지고, 목표 의식도 사라진다. 반면 어려운 길을 헤쳐가면 단련이 되고, 성장한다. 방송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지만, 지금 택해야 하는 건 어렵고 힘든 격투기 선수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난 부친 추계이씨는 제일포동 유도 선수 출신으로 추성훈의 인생 멘토였다. 추성훈은 아버지 영전에 2년 만의 복귀전 승리를 바치겠다는 각오다.

피주영 기자

영끌족 변신한 안재홍 “생활 연기의 끝 보여드릴게요”

“한 가정의 거실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생생하고 사실적인 감흥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기인데 연기가 아닌 것만 같은, 생활 연기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1·2화가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LTNS’(감독 임대형·전고운)에서 남편 사무엘을 연기한 배우 안재홍(38)의 각오다. 그는 지난해 넷플릭스 ‘마스크걸’에서 인터넷 방송에 빠져 사는 음침한 성격의 주인공을 맡아 “원작 웹툰을 찢고 나왔다”는 호평을 받았다. 모든 걸 소진한 연기였다는 뜻에서 ‘은퇴설’까지 나올 정도였다. ‘LTNS’ 제작발표회에서 “복귀작”이라고 너스레를 떠 그는 “부부로 호흡한 이솨과 폭넓은 감정을 그려고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표현했다”고 말했다.

안재홍은 대중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2015)의 김정봉 이후, 6년째 연애만 하는 김주만(KBS2 ‘쌈, 마이웨이’), 능청스러운 스타감독 손범수(JTBC ‘멜로가 체질’), 비정상적인 관계에 몰두하는 주오남(‘마스크걸’) 등 드라마마다 개성 넘치고 몰입도 높은 연기를 선보였다. 그와 아내 우진 역의 이솨는 전고운 감독의 전작 ‘소공녀’, 안재홍이 연출한 단편 ‘울림울림 울림대는 가슴 안고’에서 커플로 호흡을 맞췄고, 이번에는 부부 역을 맡았다.

‘LTNS’의 사무엘은 ‘영끌족’ 캐릭터다. 대출까지 끌어모아 낡은 아파트를 7억원에 샀지만, 고금리에 허덕이며 김치 하나로 밥을 먹고, 커피는 사치품으로 여긴다. 서울대를 나와 스타트업



배우 안재홍(왼쪽)과 이솨가 출연한 드라마 ‘LTNS’는 성과 불륜을 소재로 한 발칙한 작품이다. 두 사람은 짝한 현실에 관계마저 소원해진 부부로 호흡을 맞췄다. [사진 티빙]

을 차렸다가 망하고, 빚으로 마련한 택시를 운전한다. 아내가 “씻고 나왔다”며 유혹해도 “위생적이겠네”로 받을 만큼 부부 사이도 삭막하다. ‘LTNS’는 ‘Long Time No Sex’의 약어다.

안재홍에게 기혼자 역할은 처음이다. 결혼한 전 감독을 멘토로 삼아 유부남의 감정을 끌어냈다고 한다. 요즘 부부들 모습을 사무엘·우진 커플에 투영했다는 임대형 감독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는 미러링 캐릭터들은 이전부터 다양하게 시도됐지만, 현실의 변화 속도를 비춰보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드라마는 사무엘이 친구의 불륜 사실을 숨겨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손에 쥐면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한다. 불륜 협박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그는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우진이 적어 온 리스트를 바탕으로 불륜 추적자가 된다. 불륜을 미끼로 협박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란 생각에 불안해하면서도, 돈 앞에서 현실과 타협

하는 등 안재홍의 ‘생활 연기’가 실감나게 펼쳐진다.

안재홍은 “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인정하고 싶진 않은 블랙코미디다. 전개가 예측 불가라서 캐릭터에 현실성을 더욱 부여하고자 했다. 뉘앙스가 중요하다 생각해 어미까지 신경 써서 말이 가진 힘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마에스트라’, TV조선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등 넘쳐나는 불륜 소재를 또 들고 나온 데 대해 전 감독은 “불륜과 성이라는 소재가 자극적인 순 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 부부 관계, 직업, 꿈 등 모두 한때 무언가에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걸 잃어버린 현대인의 초상을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LTNS’(총 6화)는 매주 목요일 2화씩 공개된다.

황지영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own to a fine art; 완벽하게

(Connie waves at a taxi cab...)
(카니가 손을 흔들어 택시를 부른다...)

Connie: Taxi! Thanks for pulling over.
 카니: 택시!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Driver: Where to?
 택시 기사: 어디 가세요?
 Connie: Downtown, The National Museum of Art.
 카니: 다운타운 방향입니다. 국립미술관.
 Driver: No problem. Hop in.
 기사: 괜찮네요. 타세요.
 Connie: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카니: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Driver: It all DEPENDS ON the traffic. I have it down to a fine art so it shouldn't take very long.
 기사: 교통이 얼마나 막히느냐에 달렸죠. 그런 게 가 꿰고 있으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Connie: Great.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 fare will be?
 카니: 잘 됐네요.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Driver: It shouldn't be more than ten or twelve dollars.
 기사: 10달러나 12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Connie: Thanks. What time does it close?

카니: 감사합니다. 미술관은 몇 시에 닫죠?
 Driver: All the museums in town are open until 8 pm.
 기사: 이 곳의 미술관은 모두 오후 8시까지 옴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 pull over: 길가로 차를 세우다.
 "I got pulled over for speeding."
 (저는 과속으로 경찰에 걸려 차를 길가로 세웠습니다.)
 ▶ hop in: (구어체) 차에 타다.
 "Charley hopped in his car and drove to the beach."

(차리는 차에 올라타고 바닷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 depends on or upon (something): (무엇에) 따라 다르다 달렸다.
 "Admission to the university depends upon the students' performance."
 (대학 입학은 학생의 성적에 달렸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보온을 하거나 열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재료 (3)해엄질 때 발등으로 물 위를 잇따라 치는 일 (5)바람을 막거나 장식용으로 둘러 치는 물건 (6)분발하도록 재촉하거나 격려하는 일. □쪽□ (7)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9)날이 없는 도구. 사람을 상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몽둥이나 벽돌 따위 (11)어떤 일을 해 질 무렵까지 계속함 (13)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15)키가 석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칠없는 어린아이 (17)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20)올해 (21)남자가 여자 형제를 이르는 말 (23)아이가 태어난 후 스무하루 동안. 세이레 (24)맛을 느끼는 감각 (25)민속자료가 될 만한 것을 모아 인위적으로 만든 마을 (26)손톱에 물들이는 꽃. 초저녁 별빛은 초롱해도 이 밤이 다가면 질 터인데 그리운 내 남은 어릴 가고 저 별이 지기를 기다리나 손톱 끝에 ~ 빨개도 몇 밤만 지나면 질 터인데 손가락마다 무명실 매어 주던 곱디고운 내 남은 어딜 갔나(정태춘 박은옥)

세로 열쇠

(1)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드는 일 (2)콧속이 근질근질하여 예취 하고 내뿜조 (3)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 (4)달리어 감 (5)농작물이 병과 해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8)살가죽이 부르터 그 안에 물이 고인 것 (9)술법을 써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꿈. 여우가 ~을 해서 새색시로 변장했다 (10)추위 때문에 살갓이 얼어서 조직이 상하는 일 (12)어린아이 모양처럼 생긴 산삼 (13)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자식 (14)기차나 전차 따위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역 (16)등마루를 형성하는 뼈 (17)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1~은 빛이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이다 (18)눈으로 보는 감각과 귀로 듣는 감각 (19)때를 씻어 낼 때 쓰는 물건 (20)금액을 밝히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돈 (22)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23)아버지의 형제 (24)길을 잃은 아이

스도쿠

		6	1	4				7
							5	
2				9				
6			8					
3		8				9		2
					3			4
				7				6
	4							
8				3	4	5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6	9	4	8	2	7	9	8
3	4	5	9	1	7	2	3	6
6	7	2	3	4	5	6	8	9
4	8	6	9	7	5	3	2	1
2	3	5	8	6	4	9	7	1
9	8	7	6	5	4	3	2	1
5	6	4	8	1	2	3	7	9
8	9	6	5	7	9	6	7	5
7	8	9	6	5	4	3	2	1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자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사진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1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직원 구함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풀/파트타임 가능
▶ 영어 가능하신 분
▶ 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환영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f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풀/파트타임 가능
 -영어 가능하신분
 -보험라이선스 소지자 환영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f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합니다.**
 *신입 환영/경력자 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 스폰서 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티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탐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매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애난데일 부동산회사 -리셉션리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 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물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크 임)

회계사 사무실 구인(Annandale)
이력서: k54627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밑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한상준 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서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다/페이셜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소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분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풀/파트타임 가능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 confidential.hr@gmail.com
전화문의 : 240-477-5683

덴탈 어시스턴트 / 프론트 데스크 구함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p : 410-480-5234/ 지역 : 엘리콧시티

닥터오피스 프론트 직원 구함
 풀타임, 한국어/영어, 컴퓨터스킬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cr@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Manager/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옴션 (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리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티트: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트레이닝, 유급휴가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식당/제과/델리/식품〉

센터빌 Honest Grill
 Host / Hostess *영어 필수
 14215-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703-517-6439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 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 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술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Breakfast 주중/주말, F/P(\$20+tips/hr)
 server 6am-2pm DC, CUA metro 근처
703-785-8763

애난데일 토속촌에서 웨치레스 구함
703-333-3400

Cafe June 풀/파트타임 샌드위치 싸실분.
 유무경험자, 엘리콧시티
443-310-9247

MD 포토맥 지역 뉴일식당
 스티맨, 서버, 캐쉬어 풀/파트타임 구함
703-405-7272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 모집
 *College Park Area, MD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핸디맨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POS 지원/
 Pricing Analyst/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간단한 자기소개서는
 Email: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스프링필드(VA) 막창도둑 코린안 bbq
 서버, 매니저, 주방천모 구합니다.
443-953 1127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 infokddc@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 한국/타주면허 갱신
- ▶ Real ID 신청
- ▶ 차량 구입/등록
-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J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중앙일보**

알링턴에 새로 오픈한 gute Leute 커피샵
바리스타구인/바리스타 되고싶은 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518-879-7841

찬틀리 Cafe Moment
금/토/일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Chantilly Cafe Moment looking for
Fri, Sat, Sun afternoon part time.
703-376-8090
thecafemoment@gmail.com

캐시어 구함, 볼티모어 지역, 높은페이 엘리
443-621-4951

(구직) 허바치쉐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분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703-473-6022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찬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4일 또는 2일 일하실분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내에 룸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엘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에서
수선 및 개수어하실분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
엘리콧시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구독: 703-281-9660,1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지역
703-577-5866

찬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703-266-1983

엘리콧시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커머셜 캐비닛 및 밀웍 제작에 능한 팀원 모집
-드로잉 이해가능, 코리안 카운터탑 경험자
-높은페이, 평균 이상 근무시간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 3735

밤에 4시간정도 청소하실분
버지니아 센터빌, 볼티모어 케튼스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찬틀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분 파트타임 남여1명
장소 칼리지파크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고교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달리버리하실분을 모집한다. 고경력 있음
연락처: 703-505-5211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우드브릿지타운홈, 방3, 화2½,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2,500
▶703-477-3114

시니어케어 옹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롯데근처타운홈 \$2,000
방2, 욕실 1.5, 아주 깨끗함.
301-466-1646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타운홈, 방3, 화2.5, 전체 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방 4개 화3개 벽돌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든 메트로 옆타운홈 \$2,850
방3, 화2 1/2, 차고2, 새부엌,
새냉장고, 전체 세 페인트
703-489-6926

<콘도 렌트>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703-762-6759

즉시 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애난데일 H마트 인근 콘도 렌트
방1. 욕실1. 발코니. 파킹2
11월초 입주가능.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문의 요함)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싱글홈
방1, 화, 출입문별도, 간단취사, 금연자

571-243-6295

노스포토막,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2+Full Bath
571-830-4053

센터빌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렌트
H-mart, 롯데 2마일, 출입문 별도, 화장실과
샤워실, 인터넷.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문자: 703-405-9005

페어팩스지역 GMU 걸어서 1분거리 2층방
단독화장실 주방 주차면리
347-421-7894

단독주택 2층 큰방/ 주차 / 인터넷/
가구완비/ 냉장고 별도/ 샤워실/ 별도/
29번과 198번 만나는지점
Burtonsville, MD 20866
240-413-2738

애난데일 중심 싱글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703-606-0700

폴스처지 싱글홈 지하룸메이트 \$450
즉시 입주, 작장남자분 환영
571-224-3383

MD 저면타운싱글 2층방1개, 침대,
가구 완비, 뉴그랜드마트 옆, 인터넷(유료)
301-538-1438

웨이옥스몰근처방 Rent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mr. 권 (571)525-4220

페어팩스 50번도로 66도로사이
비엔나전철역근처방 렌트, 남자 직장인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환영
703-419-0337

애난데일 노바대학공원 옆 싱글홈
가구, 침대, 나무마루 등 모든 것이 갖추어진
깨끗하고 조용한 집, 방 1개/2개(욕실 별
도). 학생, 직장인 환영
문의: 703-336-3283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H마트 뒷 콘도 화장실 딸린 큰 방
703-300-8669

애난데일 H마트 옆, 방 1개 렌트
인터넷 및 가구 일체, 유료 \$800
직장 다니는 분 환영, 12월 중순 입주
703-350-1986

센터빌 H마트 옆 조용한반지하, 주차 사용
571-332-4559(문자 주세요)

조용한로턴(페어팩스) 주택가
- 워크아웃 지하전체 방3개
- 넓은 리빙룸, 유료(인터넷)
-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음
571-488-5860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페어팩스 쾌적한숲속 환경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문자 요망)

방1개, 전기포함 \$600, ElkrIDGE, MD
631-834-2679 / 410-245-2702

애난데일 예촌앞방 2개 렌트
직장인, 학생 취사 가능
703-622-2033

페어팩스 병원 옆 단독주택 지하방 1
세탁기완비, 침구 및 탁상
Rt. 50, 29, 286 (Fairfax Pkwy) 가까운 곳
남자, 금연, 11월 21일 입주 가능
T. 571-236-0834 (Mrs. Jin)

애난데일 홈디포뒤방1 렌트
출입문 별도, 주차장 있음
571-237-341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커머셜 콘도 800sq 렌트합니다.
571-237-3411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콘도 \$200,000
방1, 화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골대지 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703-477-3114

프레드릭스버그 타운홈 \$399,900
2019년 새단지 새집. 1 Car Garage,
End Unit. 방3, 화장실3½, 탁트인 구조,
Walkout Basement, 밝고 환한집.
넓은 Deck, 파킹장 많으며 큰 호수가 있음.
▶703-477-3114

맥클린 콘도 \$352,000
방1, 화장실1. 962s.f. Many Upgrades,
Newr Appliances, Newr HV/AC,
Tyson's Corner 가깝음.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703-477-3114

우드브릿지 싱글홈 \$749,900
2019년 새단지 새집. 2 Car Garage,
2,392s.f.+지하실 1,056s.f., 방4, 화장실
3½. Fenced Backyard. 밝고 환한 예쁜집.
▶703-477-3114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 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 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 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 은퇴 Good location.
엘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780,000. 6일. 용자. 부부운영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애난데일 마트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버지니아에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 바람.
703-582-8689

세탁소매매 Upper marlboro, 좋은장소
703-850-3714

마켓내 성업중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లే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일요일 아침 9시 버크레이크 헬트 C에서.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부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새해(2024년) 달력 판매(벽걸이)
1Box = 100부 / 강아지그림. 가격: \$110.
연락: 571-242-3736

해피라이딩 (bike riding)
평일 오후 / 도로와 휴길 / Wakefield park
703-945-2991 (message)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Falls Church VA 파크안 최고 명당자리 매매
443-355-7700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아동, 성인,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시간 조율.
703-489-6567

〈중고품/기타 매매〉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9,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2006 ACURA MDX SPORT WG
23000 Miles \$5000.00
703-624-5506

Used 정품 혼마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소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소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주키 미싱 d11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닛산 로그 2011년 Good
블랙, 191k, Asis 판매가 900불
443-956-9105 (문자 먼저)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 3스타 혼마 세트 2여행용 가방 1카트
가격조정가능 문자요망
240 500 0035

남성골프채 DRIVE
1) 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 R \$600
2) PXG 0811x+PROTO
10.5도 / R \$170
301-717-7960

물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 베이저바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 x 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덴탈랩 장비와 재료 총 \$500
240-423-9968

집안에 모아둔 낚터 금, 다이아반지,
시계, 목걸이 및 팔찌 등 사실품. 문자요망
240-718-8050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 테크닉,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생활안내 703-281-9660, (문자)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밍,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다시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번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방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히팅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중앙유리
샤워도어, 자동차용,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 EV 전기자동차
-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용자로 행복해집니다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Roofing Siding Window Gutter Cabinet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Hoengseong Hanwoo
Hanwoo is regarded as a premium beef

[횡성한우] 치밀한 육질과 진한 육향의 산지직송 한우

1⁺⁺ 등심+불고기+국거리+안심/채끝살/특수부위중 랜덤 500g
횡성한우 등심정육 혼합 7호 2kg

국내 도축소의 상위 1.5% 횡성한우 ~~₩310~~ **\$259.99**



[영주한우] 소백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에서 사육

등심600g + 안심/채끝600g + 불고기600g + 국거리600g
영주한우 혼합세트 3호 2.4kg

풍부한 육즙과 지방으로 풍미 가득 **\$275.99**



[제주돼지] 씹을수록 고소하고 쫄깃한 맛 미박삼겹살

제주흑돈 2.8kg (오겹살 700g x2팩 + 목살 700g x2팩)
제주흑돈 오겹살+목살 선물세트

살코기와 지방층의 조화로운 구성 ~~₩224.00~~ **\$179.99**



[영광굴비] 법성포 해풍에 건조시킨 국내산 참조기

천일염 간이 골고루 베여 조기살과 어우러져 특유의 깊은 맛
영광 법성포참굴비세트 20마리

1.8kg 이상 **\$107.99** 2.2kg 이상 **\$179.99**



[실크지함] 전통문양의 고급스런 한지와 금보자기 포장

삼색두텁떡, 과일맛떡, 꽃떡, 영양떡, 오색경단, 과일맛경단
실크지함 2단 떡&경단 선물세트

4.7kg / 163개 / 360x260x95cm ~~₩140~~ **\$109**



[영동곶감] 국산호두를 곶감속에 쏘옥~ 고급보자기 포장

맛과 영양까지~ 품격있는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영동곶감 곶감호두말이 선물세트

수제 곶감 호두말이 1.5kg ~~₩89~~ **\$79**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석재광(결여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하숙·렌트

고급 노안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장고워비
 Income Limit (섹션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애틀랜타

구인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읍니다!
 전문가 등록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워드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QR Code and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logo.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Up to 40% 할인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전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산삼음욕탕 도인력사당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부어나픽 천종산삼원
천종산삼
 소중한 분께 '명품산삼'을 선물하세요
 산삼에 대한 궁금증을 "산삼전문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명품 생산삼 최저가 세일
\$500 > \$300 세일
최상급 명품 생산삼 세일(선착순) \$2500 > \$1500

생산삼 30뿌리 \$200
 생산삼 35뿌리 \$100

상담 문의 **213 382 9191 | 562 400 0072** 7342 Orangethorpe Ave. #A-102 Buena Park, CA 90621
천종산삼원 정성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 찜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기 탄소 열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화재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 린 \$379 트윈 \$229 | 린 \$279

탄소 원적외선 항공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 더블 \$299 싱글 \$169 |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 더블 \$359 싱글 \$219 |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 대형 \$465 중형 \$335 |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에 온수매트 트윈 \$349 | 린 \$419 트윈 \$299 | 린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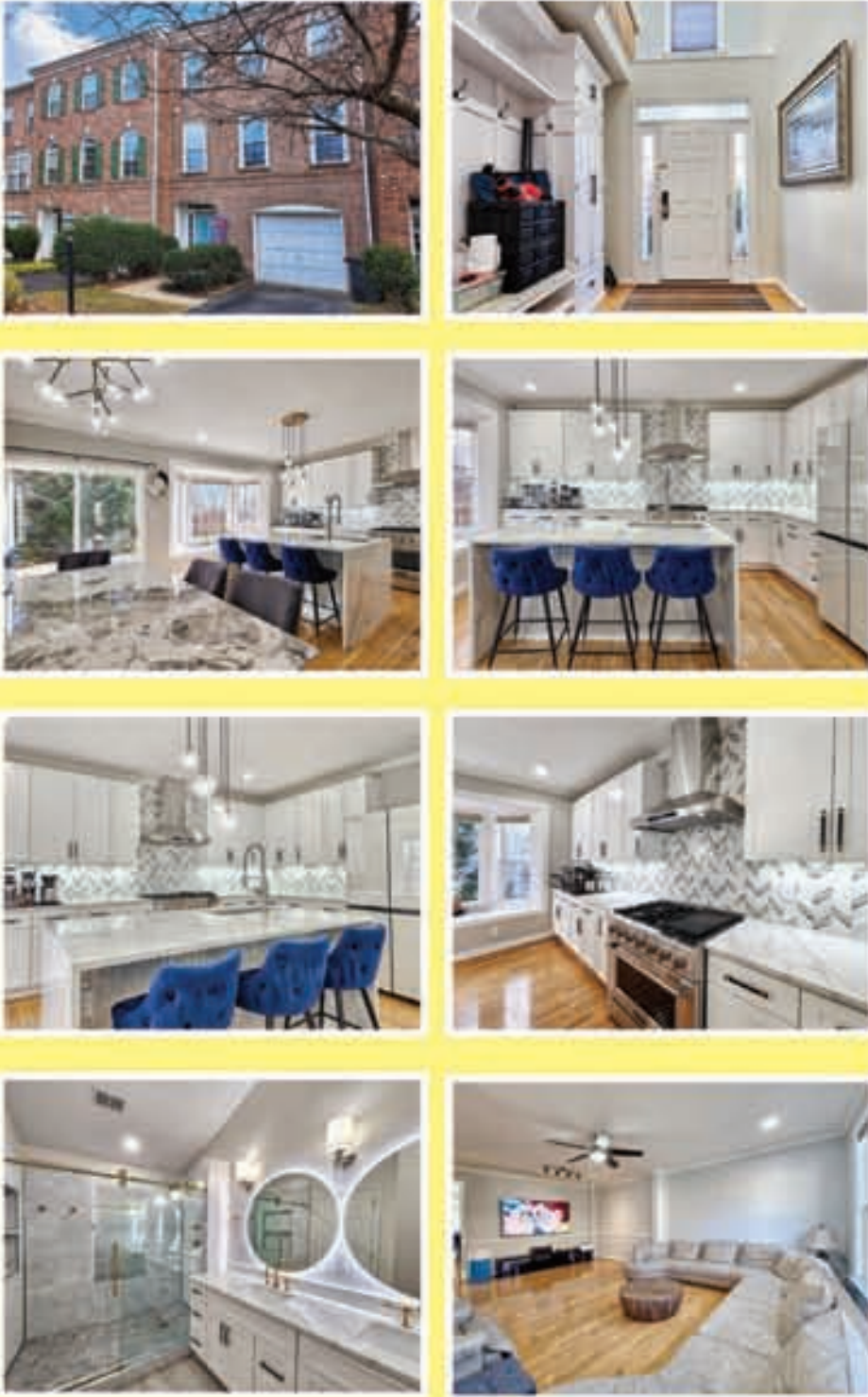
북미주 일월 총판업체 **213.985.4200** www.ilwoulusa.com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695,000

Costco 동네



밝고 예쁜 콘도

Manassas \$219,900

End Unit, 세탁기·건조기 있음, Costco 가까움



리모델한 밝고 예쁜 콘도

Manassas \$295,000

방2, 화장실2, Costco 건너편



Annandale

콘도 방1, 화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풀데크 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200,000

Annandale

방2, 화1, 리모델한 콘도, 938s.f., 넓은 리빙룸, 남향 밝은집, 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Elevator, New Windows, New HV/AC, H-Mart 근처

\$250,000

Manassas

새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End Unit, 2006년 새, SS, Hardwood, Community Pool, Basketball, Pool and Hot Tub, Sizeable, Bay window

\$474,000

Alexandria

콘도 방 2, 화2, Renovated Condo, New Appliances, Hardwood, Kitchen, Updated Baths, SS, Near Costco, Alexandria Costco 가까움

\$239,900

Annandale

타운하우스, 예년데일 중심가, 방3, 화3, Upgrade 된 주방, 새로운 LVP 마루, Updated Bath, New Paint, Fenced Backyard, 나무 Patio, 밝고 환한 집, 쇼핑센터 가까움, 교통 편리

\$540,000

Fredericksburg

타운하우스, 2019년 새단지 새집, 1 Car Garage, End Unit, 방3, 화3, 탁트인 구조, Walkout Basement, 밝고 환한집, 넓은 Deck, 파킹장 많으며 큰 호수가 있음

\$399,900

McLean

콘도, 방1, 화1, 962s.f., Many Upgrades, New Appliances, New HV/AC, Tyson's Corner 가까움,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325,000

Woodbridge

단독주택, 2019년 새단지 새집, 2 Car Garage, 2,392s.f., Hardwood, Backyard, Fenced Backyard, 밝고 환한 예쁜집

\$749,900

Manassas

타운하우스, End Unit, 완전히 리모델한 집, 방3, 화2, 2Levels, Hardwood, Fenced Backyard

\$349,900

Springfield

타운하우스, 방4, 화2,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교통편리

\$54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le Broker 세리 리
703.244.6526